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회보 2011년 가을제124호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이화동창

2011년 가을 제124호



- 02 · 가을의 시 아아 가을인가 | 김양식
03 · 총동창회장 인사말 모교의 창립 정신 아래 하나 되길 | 조종남
04 · 창립 125주년 기념 ‘생생 삼총사’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특별 좌담회
12 · 기획 시리즈 노교수와 두려운 제자들—안인희 교수와 그 제자들
18 · 기획 시리즈 우순옥 교수가 추천하는 2011 이화 유망 작가—최은혜
20 · 자랑스런 이화동창 의료원장 세 번 연임한 ‘파뜻한 섬김의 리더’ 서현숙
22 · 자랑스런 이화동창 빈곤 없는 나라 꿈꾸며 35년 와길 걸어 온 국회의원 강명순
24 · 자랑스런 이화동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일등 공신 나승연
25 · 자랑스런 이화동창 홍콩 밸티스트대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좌 후원 정도경
26 · 기획 시리즈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황재복 디자이너 | 김선주
30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나와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보영
34 · 그 때 그 시절 그 교정 C판에 묻은 내 청춘의 희로애락 | 손효경
36 · 나눔 실천 현장방문기 자원봉사자가 만든 노인 평생 교육 시스템 | 이경희
39 ·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지금은 침묵할 때 | 천양희
42 · 총동창회 소식
46 · 선교부 소식
47 · 대학소식
50 · 과·학부 소식
51 · 국내·해외지회 소식
58 · 모교 소식
63 · 동창소식
67 · 신입동창명단
74 · 동창이 펴낸 새책
77 · 축하합니다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온(영문79)

2011년 가을 제124호 비매품 | 발행 · 2011년 10월 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계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 201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아아, 가을인가

김 양식 / 영문 54

새벽에 슬며 일렁이는 갈바람은

이웃 산 맑은 햇새 소리도 실어와

선잠 깬 내 귀불을 간질인다.

시름 가실 길 없는 우리 삶의 어지럼증

언제고 하늘 끝 저만치에

한 점 아스리한 구름으로 걸렸어도

오, 새날의 여명은 저토록 어김없이

먼 산 능선 위로 불게 피어오른다

훌쩍 날아가듯 입추도 지나

진초록의 무거운 나뭇가지 사이

늦 매미 나 몰라라 기차게 울면

어느새

가까이 물결쳐오는 싸리꽃 내음

가을인가, 아아 가을인가

모교의 창립 정신 아래 하나 되길

회장 조종남 | 의학 75

그동안 긴 장마와 홍수로 저희 마음을 어둡게 하던 여름이 지나고 소슬바람과 함께 햇볕의 따뜻한 기운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동창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반기에 ‘모교 창립 12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행사로 기억된다면 후반기에는 ‘이화인의 밤’이 아마도 많은 동창들께 큰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행사일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화인의 밤’에도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전보다 두 배나 많은 추천서를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화인의 밤’에 꼭 오셔서 수상자의 값지고 아름다운 봉사와 나눔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는 동창들이 자녀나 손자와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이화 교정이 주는 기쁨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므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말 보스톤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저희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약 1만여 명의 이화 동창들이 계시는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모교의 창립 정신 아래 하나 됨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합니다. 동창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교의 발전과 영광은 바로 동창들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모교를 돋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한다면 ‘이화인’으로서 우리 자신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합과 열정과 참여’의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무한한 노력을 할 것이며 믿고 하나 되는 총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교 창립 125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생생삼총사’ 믿고 지켜 봐주십시오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를 연다

9월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뜻 깊은 회합이 있었다. ‘이화동창’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자리를 함께한 세 분은 우리 모두가 자랑하는 모교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장명수 이사장, 김선욱 총장과 조종남 총동창회 회장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보았다.

진행 ·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 정리 · 김경은(영문 79, 이화동창편집위원)
배석 · 박성희(이대 기획처부처장 홍보) | 사진 · 이은봉(올리브스튜디오 대표)

촌음을 아끼시는 세 분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작년 8월에 취임하셨고 이사장님과 동창회장님은 금년 3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신 것은 처음 이므로 늦었더라도 취임 소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50년을 다른 직종에 있다가 학교 이사장 직을 처음 맡게 되어 취임 초기에는 학교 일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모교라서 정서적으로 적응이 빨랐습니다. 낯선 느낌보다 친숙함이 더 컼고 ‘내학교’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지요. 특히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직장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이 성공한 조직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18만 동창의 대표가 되어 황송하게 생각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취임 후 동창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이화동창 모두가 내 일처럼 모두 합심해서 도와주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는 작지만 이화라는 큰 힘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모교 졸업생으로서 모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큅니다. 이화의 역사가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선배와 스승들의 현신적인 노력이 더욱 마음에 새겨지면서 우리 이화여대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금 동창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파주캠퍼스 백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그 동안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2캠퍼스 부지로 파주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예상 가격이 292억 원이었고, 그 후 감정 평가를 한 결과 652억 원으로 평가되어 이사회에서 매입하기로 의결했는데, 이후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서 1,750억 원을 요청 했기에 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을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동창들께서 파주부지를 위해 모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파주캠퍼스가 백지화되면서 일단 기부자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 학교와 재단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총동창회~~ 전·현직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파주 캠퍼스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대다수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썼지만 본질은 가격이 맞지 않았기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총장 파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화여대 교육복합 단지가 파주에 건립되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이 커울 것입니다. 그러나 파주는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토지 소유권자인 국방부와의 가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교육복합단지를 실



조종남 총동창회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화 동창들을
모두 국내에 모이게 하여
이화인 전체 동창회를 수년 내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파주시의 실망은 이해가
가지만 언론 보도 중에는 사실무근의 것들도 많았
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민들의 안타까움을 함께 하
면서 파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정성껏 하고
자 합니다.

동창회장 총동창회도 이배용 전 총장님으로부터
처음 계획을 들었을 때 제2캠퍼스에 대한 기대가
커서 많은 동창들이 꿈에 부풀어 각기 회장들의 노
력으로 50여억 원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이 백지화되면서 실망한 동창들도 있었지만 대부
분 동창들은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을 했습니다. 제가 동창회 고문님들과 각 대학 동
창 임원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모교 사랑이 우선
이며 학교와 재단에서의 결정을 신뢰하고, 학교 발
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
견이었습니다.

학교 측도 지난 총동창회 전·현직 임원 초청 간
담회에서 캠퍼스 마스터 플랜 설명을 명확히 해주

셔서 이제 동창들은 파주 캠퍼스 계획이 신촌으로
옮겨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이후 적극적으로 학교를 믿고 사랑하
고 도와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 역시 ‘이화사
랑’이라는 선배들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
나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장 이번 파주 결정은 어려운 것이었는데 동창
들께서 학교 결정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학교 발전
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있어 어려운 중에 힘이 되었
고 후속 조치로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에서 동창
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창
들의 ‘이화 사랑’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결정이 학교 발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장 저희 목표는 신촌 캠퍼스를 최대화하고 최

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지난 설명회 때 동창회 임원들께서 설명을 듣고 만족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특히 솔베이 산업단지가 캠퍼스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갖고 평가를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총장 올해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공사가 시작되고, 공과대학 옆으로 산학협력동이 6000평 정도의 건평으로 설계 완성되어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학관을 포함한 노후된 건물들과 빈 공간들을 구역 별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 나은 캠퍼스 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얼마 전 총동창회에 파주시 기자의 취재 요청이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모금한 돈을 학교 측에서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교 측의 명확한 설명으로 동창들이 단합해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더니 그 후로는 이에 대한 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 동창회에서 지난 4년간 공들여 모아준 기금을 더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로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늘려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총장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국가의 대학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는 사립대학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

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학금을 늘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경우에는 적립금 구조를 변경하여 적립금 중 많은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바꾸어 그 이자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외적인 장학금을 확충하는 제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미 적립금 중 200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증액했습니다.

매년 이 운영수익 60억 원이 장학금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도 학비와 생활비까지 가능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입학생부터 이화 미래인재 전형 장학금을 신설해서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창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장 사건을 말씀 드리면, 반값 등록금 보다는 장학금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적이 좋다거나, 생활이 어렵다거나, 도와주어야 할 여건이면 장학금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경쟁이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과 그럴 필요가 없는 학생과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덜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 그러나 문제는 반값 등록금의 논리로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이런 재정구조로는 국제적인 경쟁

에서 이길 수 있는 교육, 연구 여건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 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주 동창회 문제 해결에 대해 세분의 중지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총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의 의견보다 총동창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총동창회 규정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가 합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학교는 존중합니다.

동창회장 40년 전에 모교를 돋기 위해 미국에서 '이화국제재단'이라는 모임이 형성되어 모교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과 별개로 새로 만들어진 동창회가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이견이 있어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 팀이 서로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될 터이므로 소통이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동창회는 자원봉사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해외 동창들의 이화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보스턴 모임에 동창들이 많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장님과 총장님은 75년도 같은 해 졸업하셨고 이사장님께서는 11년 선배이십니다. '비슷해 보인다' 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이

'생생삼총사'로 불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저는 집안도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또 제가 다닌 이화여중·고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노력하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신문 만든다는 평계로 숲속에 앉아 얘기 하며 수업을 빼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현구 교수님이 학기 말에 '이대학보' 기자들의 성적이 나쁘다고 어찌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 다음 학기에 열심히 해 성적을 올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모범생은 아니었고, 자유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했기에 신문 기자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에 입학해 보니 여고 시절 못지않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을 뿐 아니라 각자 뛰어난 면을 북돋아 주고, '여자가 잘났다 (뛰어나다)' 고 등 두드려 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화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화 교육의 장점은 경쟁사회에서 장거리를 뛰어보면 나타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화인들입니다.

총장 오늘 사회과학대학 초청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특강이 있었는데 장관께서 학생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놀랐다고 하시며 이화 졸업생이 남녀공학 졸업생보다 일을 독립적으로 잘 하



장명수 이사장

●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았기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며 이제 파주
캠퍼스 이전은 백지화 됐습니다.

고 있다고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화대학의 교육은 ‘그냥 여성교육’ 이 아니라 지도력을 갖춘 여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이사장 이화의 창립정신이 이화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이화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외에도 많은 여자 교수님들과 여성지도자를 보고 지내며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남녀공학 여학생은 교내에서 좀 더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반면 우리 학생들은 여자들끼리의 생활이라서 오히려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한다는 뜻이겠지요.

동창회장 저도 이화대학이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사이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더 큰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감수성이 예

민할 때 채플 시간이 있어 인간성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 이화의 교육이 참 좋은데 요즘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총장 얼마 전에 입학처가 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했는데 그 분들이 여자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해보고 싶다’ 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사장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웃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적립금 문제로 과거에 모금했던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모금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교에 입학하던 해에 김활란 선생님께서 총장직에서



김선옥 총장

●
이화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정해주는 것 외에도 많은 여자 교수님들과 여성지도자를 보고 지내며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러나 이사장이 되셨는데 재단에 돈이 없어 모금을 위해 미국에 가셨지만 모금은 잘 되지 않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귀국해 병이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다른 대학 총장 선거 때 총장 후보 선정 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총장 후보들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모금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한결같이 강조해서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와 보니 기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총장 반값 등록금 문제와 감사원 감사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이화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 기술 연구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구성원이 기술 또는 특허를 개발하고 발견하면 영구히 이화의 자산이 되어 재정 걱정 하지 않고 학교 발전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꿍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그 동안 이화가 우리 사회의 ‘최초’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 한국 과학 노벨상이 이화에서 처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베이 사와 산학협력을 시작하면서 한 두 해 내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기초를 만들어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동창회장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 병원이 많을수록 의과대학 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병원을 팔았을 때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는 이대 목동 병원 하나뿐이지만, 제2, 제3 병원이 생기고 진료를 잘해서 입원 청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본교 내에 있지 않아서 관심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앞으로 병원이 더욱 발전하면 학교의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학생, 졸업생들 모두 이대 목동병원을 ‘우리 병원’이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과대학 졸업생으로서가 아니라 이화대학 졸업

생으로서 동창들을 위한 병원 진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병원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화동창들을 모두 국내에 모이게 하여 이화인 전체 동창회를 수년 내 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사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국내부터 전부 한자리에 모이는 동창 대회를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동창회장님 임기 동안 한번 계획해 보시지요.

동창회장 동창회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니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요즘 스크랜턴 여사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혁명가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교육으로 여자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그분의 신념이었고 그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화의 역사입니다. 그 정신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현될 수 있겠지만, 이화 교육의 큰 목적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런 ‘혁명정신’은 이화 역사 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고,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회를 천천히 확실하게 바꾸는 이화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YWCA에서 ‘특별상’을 노숙자들을 치료해주는 이화 의대 졸업생인 젊은 여의사에게 주었습니다. 수상자 프로필이 담긴 비디오가 아주 감

동적이었습니다. 이화가 사회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인재를 배출해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총장 우리 동창회에서도 젊은 동창에게도 상을 주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가 젊은 동창을 모일 수 있게끔 하였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최근 학교가 졸업생들을 평생 AS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동창회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동창회장님도 전문직업을 가지셨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세계대회 이전에 전문직을 가진 젊은 동창들로 국내 대회를 먼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박람회처럼 학생들이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대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을 직종별로 모으면 굉장한 숫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동창회장 내년 봄에 젊은 동창들과 함께 하는 even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event로서 동창들이 새롭게 변모한 모교 캠퍼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이화여대에 오고 싶어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 28일에 개최하는 ‘이화인의 밤’에서 도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창회에서 할 일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生生삼총사’ 세 분께서 자주 회동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인희 교수와 그 제자들



왼쪽부터 꽈삼근, 김은산, 강영은 동창, 안인희 교수, 조남숙, 김수홍, 김영주 동창, 뒷줄 왼쪽부터 정대련, 박혜경 동창

노 교수의
회상

나는 선생님이고 학생입니다

안인희

전사범대 교육학과 교수(교육학과 1회, 1949년 졸업)

“도대체 너는 선생이냐? 학생이냐?” 애마 선생님의 꾸지람은 대개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52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되어 나는 대학원생이 되었다. 동시에 학장실 조교로 근무하고 동시에 강의를 맡아 선생이 되었다. 일인 삼역. 한 가지 일도 벅찬 내 처지에 이건 말도 안 된다.

모두 전쟁 탓이다. 6·25 전쟁의 재앙은 나에게 이렇게 닥쳐왔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 폭탄 세례에 죽은 사람, 공산당에 끌려간 사람, 난리 통에 행방불명 된 사람들 틈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 일



안인희교수가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애장품 전시회 리플렛

인삼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한다.

사범대학은 부산 피난지에서 태어났고, 그 초대 학장님이 바로 김애마 선생님이시다. 내가 성을 빼고 이름만 불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이 상하게 이화에서는 높은 어른을 이렇게 성을 빼고 헬렌(김활란)선생님, 혹은 애마(김애마)선생님으로 호칭한다. 남들은 학교에서 아무개 교수라고 부르는데(난 교수 호칭이 싫다. 잘난 체 하는 게 싫다) 이화에서 살아보면 이런 호칭이, 즉 세례명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정답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는지 지내보니까 알게 되었다.

부산 피난지에서 임시로 학교를 지었다. 말하자면 판자 집이다. 흑판 하나 세워놓고 참고 도서 하나 없이 입으로만 강의가 전달된다. 내가 맡은 '교육원리'는 당시 강당으로 사용된 큰 방에서 마이크 없이 백여명 가까운 학생들 앞에 서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고 갓 도착한 임교수 덕에 나는 강의 시간에 들은 것을 재탕, 삼탕해서 학생들에게 써 먹었다. 그 후 40여년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은퇴를 했다. 나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축하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해했

다. 어떻게 속죄를 해야하나! 그 후 또 20년 세월이 흘렀다. 마음 한 구석에서 굳건히 자리를 차지한 아쉬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내 마음이 풀릴까? 다행히 나이 먹으니 시간이 많아졌다. 내 마음대로 새벽에 일어나고 밤 9시 뉴스 끝나면 잠자리에 들고, 내 시간이 많아졌다.

하루에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책을 가까이 하기에 적당한 나이다. 선생은 글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먼저 태어나 젊어보기도 했고, 아파보기도 했고, 웃음도, 눈물도 많이 경험했다. 지내놓고 보니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렵잖이 아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됐어도 선생 노릇 좀 잘 했을텐데…….

언젠가 저 세상에 가서 애마 선생님을 만나면 말해야겠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이면서 학생이예요. 학생 없이는 선생 노릇 못 하고요. 선생 없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지요.”



안인희 전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자유로운 영혼의 교육 예술가

조 남 숙 /59. 전 이대부속 중고교 교사

오랜 인생의 항로에서 등대와 같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다. 6·25 전쟁이 남긴 아픈 상처와 어수선함 속에서 경직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들어온 이화여대 교정은 딴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그 곳에 영혼이 자유로운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과 같이하는 시간들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연한 가운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미국 다녀 오신 후 그 당시 유행하던 '엘비스 프레스리의 love me tender'를 달콤하게 부르시던 수줍은 모습이나, 늘씬한 몸매에 미니스커트를 멋지게 입으신 모습도 파격적이었다. 우리들과 정서적 공감대가 이어진 언니 같은 선생님이기도 했다. 교육을 연극이나 문학작품 등 예술전반으로 풀어내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셨다. 선생님이 기획 연출하신 토파즈란 연극에 학생으로 참석했던 좋은 추억도 간직하고 있다.

졸업 후 30여 년을 이대부속 중·고등학교 교사로 이대 교정에서 선생님을 볼 수 있었던 행운도 감사하다. 오랜동안 교육의 현장에서, 삶의 여정에서 안 선생님이란 밝은 등대의 빛을 바라보며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음에 거듭 감사한다.

자유교육 씨앗 뿌린 공로자

김 은 산 /59. 전 한국나일연구회 회장·전 흥익대 교수

누가 나에게 "이화대학교 교육학과에 와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태도'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분의 하나가 안 교수이시다.

1955년 경 안인희 교수와 박정례 선생님(후에 이대부속중고와 금란여고 교장)이 중앙우체국 뒷골목의 헌 책방에서 '문제의 부모', '문제의 교사' 등 일본어판 나일(세계적인 자유학교 Summerhill의 창설자)의 저서 6권을 발견하여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이대 도서관에 구입, 비치하도록 했다.

1956년 교육학과 학생이던 내가 '문제의 교사'를 발견하여 읽고 큰 감명을 받았을 뿐더러 그후 또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제의 가정'을 발견하여 읽은 나는 당시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로부터 나는 나일의 사상을 더 잘 알고 싶었고, 남들에게도 더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러한 내게 안인희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훗날 'A. S. 나일연구—그의 사상과 서머힐학교의 교육사적 의의'라는 박사논문까지도 쓸 수 있었다.

'나일연구회'를 만들게 된 것도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다. 실제로 안 선생님은 자유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제자들에게 기회와 격려를 줌으로써 꾸준히 가꾸고 키워온 공로자라는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정년 후 선생님의 생활은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태도'의 면면을 잘 보여주고 계신다.



이제 함께 노년을 보내는 스승과 제자.

닮고 싶은 선생님

강영운 / 65. 전 동역여대 영어과 교수

학부시절 안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부터 나는 늘 선생님 같이 되고 싶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선생님이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 그러나 팔십을 넘기신 연세에도 정력적인 짐필 활동, 사심 없는 기증, 최근에는 후배와 제자들을 위하여 힘든 책까지 번역 하신 그 열정을 지켜보면서 주제넘게 닮고 싶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보고 닮고 싶었던 선생님의 두 가지는 손놀림과 입모습이다. 강의 하실 때 길고 가느다란 손 가락 사이사이를 힘 있게 띄어서 설명하시는 모습-당신 강의에 대한 자신과 신념에서 나오는 gesture일 것이고, 짙은 집념이 배나오는 것 같은 입모습-말씀 중에 입을 꼭 다무시는 모습(독특한 매력이 풍기는 입모습) 조차도 너무 멋있어서 닮고 싶은 나는 종종 거울 앞에서 흉내도 내어 보았다. 그후 오랜 세월 선생님을 감히 큰언니 혹은 늦등이 막내 이모처럼 느끼면서 선생님만의 집념과 자존

심이 간간히 꼭 다무시는 입 모양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자를 위해서는 한 없이 인자하신 분. 내가 신통치 못 할 때도, 직장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어 할 때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서 내가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무언의 꼭 다무신 입모습만 보여주셨기에 나를 믿어 주시는 그 인자한 마음이 너무도 감사해서 선생님처럼 열심히, 조용하고 겸손 하지만 정열적으로 일하면서 살자고 다짐도 해보았건만, 다짐만 하면서 늙어간다.

예술가이신 교육 철학가

김수홍 / 65. 전 사대학장실 조교

왜 그토록 안인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워하는 제자가 많은가? 평생을 루소의 교육론을 가르치고 실천해온 유명한 교육 철학가여서 그런가…….

이 이유도 그중 하나지만 특별한 다른 면이 더 있다. 첫째, 어떤 문필가와도 비견할만한 논객이요 문장가이시다. 통렬한 비판 문체는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가 하면 때론 사랑과 낭만의 무지개 빛 표현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킨다. 둘째는 예술

지상주의자시다. ‘학문은 예술이다’ 할 정도로 예술 각 분야에 걸친 격이 높은 선생님의 해박한 청담(清談)은 딜레탕티즘(Dilettantism)에 빠진 ‘지적 호사가’들을 선생님 주변으로 항상 모여들게 한다. 셋째는 인간의 본성을 우선시하는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이다. 격식과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식은 구속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밀어내신다. 자유스런 사유와 정신적 멋을 창조하고 생활화시킴으로서 매력이 넘치신다. 선생님께서 사대 학장에 부임했던 초기에 교육관 본관 전면에 부착한 조형미가 뛰어난 히브리어로 쓰여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구절이 세월의 테를 더하면서 지금도 고색창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전무후무한 뮤지컬 ‘백설공주’ 공연

김영주 /71년, 사범대학 동창회장

작년에, 평생 모으신 사부님의 애장품인 고려시대부터 이조시대에 걸친 청자·백자 62점을 자손에게 물리시지 않고 국립 박물관에 기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격케 하셨는데, 이번엔 그 까다로운 ‘러셀(Bertrand Russell-1872~1970)의 교육론’을 2년 넘게 고생하시며 번역해 책을 내셨다. 예전에 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과 ‘러셀의 교육론’을 원서로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신 게 계속 맘에 걸려, 수십년 후에 번역본을 내어 제자들이 이제라도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셨다고.

얼마 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학

장 6년 동안 했던 일 중 생각나는 건 ‘백설공주’ 밖에 없어!”라고. 선생님은 원래 연극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학생 때부터 연극을 하셨고, 불어로 된 각본을 손수 번역해서 무대에 올리셨으며, Salon Drama를 사범대학에도 입하셨다. 학장이 되신 후 사범대학뿐 아니라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부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뮤지컬 ‘백설공주’를 생각해 내셨다.

백설공주가 숲 속 생활을 하는 장면에서 부속 유치원생들은 각종 동물 역할을 했으며, 부속초등학생들은 숲속의 새들을 맡아서 발레로 표현했고, 부속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300여명의 합창단이 있었고, 남자 부속고등학생과 졸업생들은 왕과 왕자, 시종 등 모든 남성역을 맡아 훌륭히 소화했다. 왕비와 시녀들, 그리고 백설공주는 사범대학 재학생 중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고, 작곡과 합창지도, 안무와 연기 지도는 부속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두 달 정도 연습을 하고 개교 기념 행사의 하나로 5월 말에 대강당에서 2회의 공연이 있었는데 대강당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열심히 했고, 공연 후 그 성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인희 선생님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어 부속학교까지 합세하여 멋진 뮤지컬을 만들었던 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세배 값주시던 소탈한 모습

곽삼근 /75년, 이대 교육학과 교수

선생님께는 사람이 지닌 권력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존중을 강조하고 실천하셨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이 특히 강렬하게 남아있다.

세배를 다니던 옛날, 4학년과 3학년 학생대표들 몇 명이 선생님 댁에 세배를 가면 소탈하신 모습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뜻밖에도 학부학생인 우리들 한명 한명에게 지폐 한 장씩을 세배 값이라며 주셨던 모습이 기억난다. 선생님은 단순히 교육철학 지식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며, 선생님 스스로 열정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참 교육자의 길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 생각된다.

대학원 수업 어느 날 무척 기분이 맑아 보이시기 예 이유를 여쭙자 “어제 도선생이 와서 결혼 때 받은 패물을 몽땅 가져갔어. 얼마나 마음이 훌가분한지 모르겠다.” 사용하지도 않고 처치곤란이 있는데 잘되었다는 식의 마음 비우시는 대범함이 인상적 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실존주의 문학 밖의 삶

정대련 / 82년 동북여대 교수

“까뮈야~ 까뮈야~~!!! 어느 젊은 학도가 까뮈에 관한 연구를 하며 도무지 논문 꼬리가 잡히질 않자 그의 묘소 앞에 가서 까뮈를 목 놓아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더란다.” 박사논문을 쓰고 있을 즈음 선생님께서 미소 지으며 들려주셨던 이야기이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문학소녀였고 평생을 문학 속에 사셨다.

교수라서 직업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삶이 책과 함께 있었고 문학 속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다. 그 중에서도 철학만으로는 모두 해명할 수 없는 인간 군상들의 삶의 단편들을 문학으로 보여주려던 실존주의 문학에 오래도록 머물러 계셨던 것 같다.

선생님은 전통적 유교 문화에 굴복한 부조리한 굴레 속 여인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색하고 반성하는 실존자이자 지혜로운 철학자의 삶을 살아오신 것이다.



가을 사법대학교정에서 만난 노교수와 제자들. 왼쪽부터 김은산, 조남숙 동창, 안인희 교수, 김수홍, 강영은, 정대련, (앞줄) 박혜경 동창.

기획 시리즈 |우순옥 교수가 추천하는 2011 이화 유망 작가

서양화가 최은혜 내적인 추상과 빛의 지각으로 이루어진 작품세계 돋보여



Rainbow 2008 캔버스에유화 100x80cm

최은혜는 본교 03학번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 전공을 우수하게 졸업한 우리 전공의 자랑이자 장래의 커다란 유망주인 신예 아티스트이다. 최은혜의 지도교수로서 나는, 2005년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성장 과정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적

극적으로 2011 유망작가의 한 사람으로 추천한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적인 드로잉, 페인팅으로 표현되고 있는 최은혜의 작품 세계는 삶의 단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감에서 시작되며 시공간과 기억, 빛과 상상력을 그녀 작업의 주요 모티브이자 새로운 존재 탐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를 통

해 잠재된 가능성의 모색과 늘 또 다른 세계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내적인 추상과 빛의 지각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작품세계는 형태와 선, 색이 감성적 코드와 만나 드로잉에서부터 캔버스에 유화작업, 공간 속의 빛 그림자를 통해 표현한 반입체 작업, 평면에서 나오는 형태들의 윤곽선을 실체화시켜 빛을 이끌어낸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잘 연결되고 있다.

언제나 미소를 머금은 최 은혜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긍정적인 마음은 그녀의 작품을 꼭 닮아 있다. 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인격의 일치는 바람직한 일이며, 그녀의 삶과 예술에의 진실한 태도, 끝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의 탐구정신은 21세기 현대사회에 따뜻한 인간성의 회복과 예술적 치유의 밝은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Space I 2011 캔버스에 유화, 혼합재료 57x79cm



우순옥 교수(왼쪽)와 최은혜 작가.

우순옥

이대 서양화 전공 교수

서울시립미술관 자문위원, 소마미술관 운영위원

1983 이대 미술대학 및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0 독일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에서 마이스터슐러 마침

서울의 국제화랑, 대림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삼성미술관 및

뒤셀도르프 미술관, 동경 국립근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시드니 비엔날레 등

국내외에서 주요 초대전시함.

최은혜

2007 이대 미술학부 회화, 판화 전공 졸업

2010 이대 대학원 서양화 전공

현재 협성대학교 출강

개인전

2012 Solo Show , ACRE Gallery, 시카고, 미국(예정)

2011 'Something Between Us', 스페이스 함, 서울

기획전 및 그룹전

2010 'Elan Vital Project', Blank Space, 웨시, 뉴욕

2010 'Move, Moving, Movement', Ceres Gallery, 웨시, 뉴욕

2010 'Daegu Art Fair', 엑스코, 대구

2010 'ART EDITION 2010', 엑스코, 부산

2010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코엑스, 서울

2010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신라호텔, 서울

2008 'Myth in us', 도호쿠예술공과대학, 야마가타, 일본

2007 제7회 THE ONE, KTF Gallery The Orange, 서울

2007 W.A.V.E,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7 W.A.V.E, Winchester School of Art, Winchester, 영국

레지던스

2011 ACRE 시카고, 미국

작품소장

201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자랑스런 이화동창

의료원장 세 번 연임한
‘따뜻한 섬김의 리더’

서현숙



현재 이화여대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부회장,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회장,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사, 대한암학회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이사, 암정복추진기획단 위원,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감사
미국뉴욕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방사선종양학과, 인제대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주임교수 및 과장, 서울시 병원회보협의사,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역임.
미국방사선종양학회 정회원, 미국암학회 정회원
수상/ 대한치료방사선과학술상, 해도-Varian 학술상,
중외박애상, 세계 여성원자력상, 2010글로벌리더상
고객만족 부문 대상
경기여고, 이대 의대(73), 이대 석박사(87, 90)
전공/ 방사선종양학과(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뇌종양 및
기타암, 3차원 입체치료)

얼마 전 서현숙 이화의료원장은 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건강백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를 펴냈다.

“여성의 아픔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唤起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힌 서동창은, “동창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이화의료원의 진료와 검진 기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8월1일 서동창은 의무부총장과 의료원장을 세 번째 연임하며 6년간 이화의료원을 이끌게 됐다. 서동창은 지난 4년의 재임기간 동안 굵직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왔다.

우선 서울시와 장기간 협상을 벌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동대문병원을 1,100억 원에 매각했고, 목동병원과의 통합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대문병원 직원들 수용이 관건이었죠. 원하는 사람들은 한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껴안았어요. 덕택에 넘치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외래진료 3부제, 평일진료 연장 등 온갖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어 오히려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 병원노조가 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 후엔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지요.”

공공의료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신정동 서남병원 수탁운영을 맡게 된 것도 노조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화의료원과 서울시가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 서남병원은

서남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환자 중심의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성암전문병원과 여성건진센터, 여성암연구소를 공격적으로 설립하면서 ‘여성특화’ 전략을 과감히 추진하고,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을 획득하여 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인 서동창의 남은 과업은 강서구 마곡지구의 제3병원 건립 계획을 실현해, 목동, 서남병원과 함께 서부클러스터를 완성하는 것이다.

서동창은 북한 출신의 아버지가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의사인 오빠는 이화 출신 여의사가 최고라고 적극 권유하여 이화의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촌형부의 사촌동생이던 남편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소개받아 결혼 후 함께 미국 유학의 길에 올라, 명문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과정을 밟게 된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치료방사선 분야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 불치의 병으로 생각했던 암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보람이 클 거 같아 선택했는데 정말 잘 한 거지요.” 1983년, 남편의 고려대 교수 발령으로 서동창은 함께 귀국하여, 암센타를 설치하고 방사선 치료를 도입했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그 때는 미국 보드가 거의 없을 때라 유명한 분들 치료를 도맡았었지요. 폐암이 뇌로 전이되었던

이병철 삼성회장님을 비롯해, 문희, 윤정희씨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였던 남정임씨도 제 환자였어요.”

육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암환자들을 돋기 위한 모임도 서동창이 처음 시작했다.

백병원에 있을 때 유방암 환자를 위해 만든 ‘유미회’는, 1999년 이화에 와서 ‘이유회’로 이어졌고, 미국 연수를 다녀와 2000년, 원스톱 서비스의 유방센터를 오픈하여 환자치료에 전념했다. 그런 그에게 2002년 교육연구부장을 시발로, 2005년 목동병원장, 2007년 의화의료원장이란 책임이 계속적으로 주어졌다.

“환자를 보면 경영까지 도맡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교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원들과 환자들, 동창들을 섬기다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듯 합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여러 선배들께 감사드릴 뿐이지요.” 고려대총장을 역임한 남편 이필상 교수의 한마디가 어려울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서동창은 고마워한다.

너무 바쁘다 보니 남매는 자율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졸업식 사진을 보니 엄마가 한번도 못 간 거예요. 제가 외며느리라 시어머니께서 다 키워주시고 살림도 해 주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막내 시누이가 도와주고 있으니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 이지요?” 웃는 서동창에게서 ‘따뜻한 섬김의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 · 백수경(신방79, 이화동창편집위원)

자랑스런 이화동창

빈곤 없는 나라 꿈꾸며 35년 외길
걸어 온 국회의원

강명순



현재 제18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이웃사랑실천협의회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공동대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감리교목사 안수,
신나는조합조합장, 로템나무쉼터 시설장,
사회복지가공동모금회 인선위원, 민들레쉼터 시설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안산가정문제상담소·
예은청소년문화쉼터 소부평공단 광야선교원 원장장,
빈민여성교육선교원 원장, 예은여성학교 교장,
부스러기선교회 창립 회장 및 총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사 역임.
경남여고, 이대시청각교육과(74).
강남대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 기독 국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상/제1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문화관광부 사회발전유공종교인 국민훈장 목련장,
올해의 여성운동상(1999년), 선교대상 사회봉사부문,
여성신문제1회 평등부부상

강명순의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angpoor.net/>이다.

여기까지 ‘poor’ 가 등장한다. 35년 이상 빈민들의 대모임을 자처하며, 빈곤 없는 나라를 꿈꾸어온 강동창은 어떤 사람일까? 왜 빈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해, 자신도 목사가 되어 소외되고 어려운 동네에서 목회를 하며 이 힘든 일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국회의원이 되어 빈곤 빠지를 위해 앞장서게 된 걸까? 이런 의문을 안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간 필자를 강동창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우선 시청각교육과를 택한 동기부터 물었다. “아버지께서 취미로 16mm 촬영기를 들고 다니며 찍고 하셨는데, 그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입학하니까 김은우 교수님께서 시청각교육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라고 하셔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지금도 항상 카메라 갖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시를 써서 여러 권의 책을 폐냈다. 이화여대 2학년 때 새 얼씨클에서 빈활(빈민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캠프에서 감리교신학대 학생이던 남편 정명기 목사를 처음 만났다. 8남매의 가운데로 태어난 강의원은 많은 식구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사를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 했는데 그 때 옆에서 도와준 이가 정목사이다. “남자가 걸레를 짜는데 그렇게 아무지게 하더라구요. 이 사람은 뭔가 잘하겠다 싶어서 맘에 들었나 봐요.”

1995년 강명순 정명기 부부는 여성신문에서 제정한 제1회 평등부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실 그 때까지 평등부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상을 받고 나더니 평등해야 한다며 저보고 신학공부를 권하는 거예요.” 드디어 강동창은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목사안수를 받아 안산에서 예은교회로 단독목회를 시작하였다. ‘예은신나는 집’도 같이 운영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왔다.

그렇게 빈민운동에 주력하던 강동창이 갑자기 18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당시 ‘2020 빈곤아동결식아동 한명도 없는 나라’ 캠페인에 열중하던 강동창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1번 제의를 고사했으나, “지금 당신이 국회 안 가면 빈곤문제 10년 후퇴한다.”는 남편 정 목사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국회 의원이 되었다. “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려 국회에 왔어요.”라는 강동창의 말대로 그가 발족한 빈나黠위(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 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빈곤아동청소년백서’ 등 정책자료집도 75권이나 출간했다. 기존에 없었던 아동빈곤법안과 노숙인, 부랑인지원법안의 제정도 강동창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동창에게 남편 정명기 목사와 민주, 민경두 딸은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다. 강동창 부부와 큰 딸 부부는 목사, 작은 딸 부부는 전도사로 온 가족이 목회자이며 그중 작은 사위를 제외한 다섯 명이 사회복지사이다. 강동창은 “가족이 모이면 빈곤 아동 복지 등 관심사가 똑같아 말이 잘 통한다.”며 크게 웃었다.

1986년부터 가난한 아이들의 친구이자 엄마 노릇을 하며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를 운영할 때 기독교학과의 서광선 교수님과 함선영 선생님 부부

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시골에서 공수해 온 배추로 김치를 담고 나누는 번거로운 일들을 늘기쁘게 도와주셨고, 현영학 교수님이 주셨던 ‘폐다고지’ 책은 강동창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엄마로서 이화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은 자녀들을 좀 ‘내비도’ 해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모자라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주었으면 합니다.” 선택되고 축복받은 이화동창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욱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매일 4시30분에 일어나 안산에서 새벽기도를 마친 후 출근해, 국회기도실에서 직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강동창의 ‘빈곤 없는 나라’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담은 시와 사진 ‘징허게’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징허게

야당과 여당이 포옹 끌어안고
국회의원과 서민이 꼬옹 끌어안고
대통령과 국민이 쏘옹 마음 합하고
호남과 영남이 징허게 힘 모으고
남한과 북한이 뜨겁게 하나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나누고 살면
우리 대한민국 행복지수
얼마나 높아질까

글 · 백수경(신방79, 이화동창편집위원)

자랑스런 이화동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일등 공신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이대 불문과(95)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한일월드컵,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외교관, 한국은행, 아리랑TV
앵커(아리랑국제방송 1기 기자) 역임

지난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한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서 우리 국민 모두 뜨겁게 감격하였다.

그동안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유치위원회의 ‘간판 얼굴’로 통하면서 ‘평창 알리기’에 앞장섰던 ‘일등 공신’은 단연 나승연(불문 95) 동창이다.

평창유치위 대변인이자 간판 프리젠테이션 나동창은 지난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기자협회(AIPS) 총회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가진 뒤 곧바로 3월 30일 오세아니아 올림픽위원회(ONOC) 총회, 그리고 4월 3일 영국 런던의 스포트 어코드에 참석하는 등 왕복 20시간이 넘는 항공 스케줄을 쉼 없이 소화해내야 하였다. 그리고 다시 5월 18~19일에는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리는 ‘후보도시 티크나컬 브리핑’에서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평창 지지를 호소했으며 드디어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의 값진 열매를 쟁취한 것이다. 어린 시절 대사를 역임했던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 영국, 덴마크 등 해외에서 생활해온 나동창은 외국어를 우리말 못지않게 하게 되었고 불문과를 졸업한 뒤 아리랑 TV 개국 공채 1기로 입사해 4년여 동안 방송 기자로 활동했다.

외국어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꿈이었던 나동창이 2007년 여수엑스포 유치에 발을 들여 놓았고 그 후 평창 유치위원회 합류의 권유를 받게 되면서 어릴 때의 꿈이 되살아났다.

나동창은 지난 2월 IOC 실사단이 평창에 왔을 때 평창 주민과 온 국민이 보여준 열망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강릉 빙상장에서 2천18명의 주민이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을 합창할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는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평창유치위 활동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나동창은 이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랑을 주는 ‘영광의 얼굴’이 되었다.

글. 유영선(신방'75, 총동창회 홍보부장)

해외의 자랑스런 이화동창

홍콩 뱡티스트대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좌 후원

정도경



The Korea Herald

2011년 8월 27일

S. Korean honored for contributions to language education in H.K.

HONG KONG (Yonhap News) — A South Korean immigrant to Hong Kong has been honored by a Hong Kong university for her contribu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ficials at the university said Sunday.

Jung Doyoung, managing director of Silver Star Group,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over a decade to help Korean students for teaching Hong Kong students to speak and write Korean, said a senior official from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in Hong Kong on Aug. 19.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recognized her role in paving the way for the promotion of Korean language and exchanges between Hong Kong and South Korea.

The "Korean Wave," also known as Sality, has been a



Jung Doyoung (right) receives a letter of appreciation from a senior official from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in Hong Kong on Aug. 19.

(13.6~14.9%)

이대사회사업과(81)

(주)실버스타 대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홍콩 사람들을 위해 홍콩 뱡티스트대(香港浸會大學)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후원한 실버스타 공동 대표 정도경 동창은 “이제 제가 11년간 한국어 강사로 일해온 뱡티스트 대에 후원금을 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0일 2만 홍콩달러(280만원)를 홍콩 뱡티스트대학에 기부한 정 동창은 홍콩에서 부군(김운영님)과 함께 1986년 주방용품 생산 판매업체인 ‘실버스타(Silver Star Cookware)’를 설립, 현재 연간 5천만 달러(약 540억 원) 가량을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여성 기업인이다.

중국 광동(廣東)성 장먼(江門)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실버스타는 2009년부터 릴란스(Relance)라는 자사 브랜드로 전 세계 주요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광동성 장먼에도 공장이 있다.

일찍이 부군의 직장을 따라 홍콩에 거주한 정 동창은 85년부터 홍콩 중문대학에서 고급 중국어(만다린) 과정을 Full-Time으로 3년 만에 졸업한 후 홍콩에서 한류바람과 한국어 배우기 붐이 불기 훨씬 전인 1994년부터 낮에는 사업하면서 야간에는 직장에 다니는 홍콩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글을 가르쳐 왔다.

홍콩 정규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것은 뱡티스트대학이 처음이며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좌의 첫 강사직을 정 동창이 맡았던 것으로 이번 후원에 대해 정 동창은 “평생교육원이 한국관련 정기 간행물, 잡지, 시청각 교재 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후원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티스트대 평생교육원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정 동창이 이 대학 한국어 강좌의 초대 강사를 맡아 홍콩 사회에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고 후원금까지 내놓은 점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정 동창은 ‘선구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화인의 명예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보수와 진보, 모두가 사랑하는 웨딩 클래식의 선두주자

황재복 (영문 83) 디자이너



● 우리나라 웨딩 산업을 상업적이 아닌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황재복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모교 시절의 이
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83년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모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영문학은 저에게는 학문의 기본이고 영학회에서 영어 연극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패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저의 몸에 어울리는 옷이며 액세서리며 핸드백 구두 등을 골라서 저를 세련되게 나타내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모교 디자인 대학원에 진학을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현재 서울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로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에 푹 빠져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 그럼 본격적으로 웨딩 디자이너가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제 몸 속에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비롯하여 연극반 반장, 그림, 각종 스포츠 등…….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늦게 화가가 되신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인지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는 예술적인 욕구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이 30이 되면서 그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부로서의 생활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서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며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신시네티 대학의 패션 디자인과를 수료하고, 성균관 대학의 예술철학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예술은 철학으로 통한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드라마틱한 것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친지 앞에서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을 저는 삶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만은 더없이 순수해지고 진솔해져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저는 고상하면서도 품위있고 순결한 의상을 만들어서 삶의 근본을 이루는 영혼의 만남을 축하하고 미(美)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웨딩 디자인분야를 선택했습니다.

● 우리들 인생에서 30이라는 나이는 미숙함에서 원숙함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자신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현명하게 선택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파티복.

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1990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 년 안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소련과 중국하고 처음으로 수교를 해서 레닌그라드와 북경에서 열리는 국가적인 패션쇼 행사에 참여를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드레스가 너무 장식이 많고 화려했는데, 저는 모던하고 심플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드레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유행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참신하고 세련되었다는 평을 받았지요. 이제 지금은 모든 드레스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패션쇼를 마치고 모델 한혜진씨와 함께.

모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소박하고 은은한 한국적인 미를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우연히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산모시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패션 쇼를 하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시가 갖고 있는 한국적인 투명함을 살리면서 지적이고 순수하고 단아하고 기품있는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호평을 받으면서 저의 작품 활동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생각나는 친구며 은사님이 있으십니까?

모교 디자인 대학원의 배천범 교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시대를 앞서가는 강의로 저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고, 졸업한 뒤에도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훌륭한 은사님이 있다는 것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호한 앞날에 대한 길잡이를 만난 것이며 커다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후배들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할 때면 이대생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이화인들은 감각이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드레스를 처음 시작할 때면 드레스를 필요로 하는 후배님들에게 사진과 설명이 있는 예쁜 홍보용 책자를 DM(direct mail)으로 보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으로 만든 제작을 먼저 입어 보기도 합니다. 모교의 동창들은 저에게 대단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웨딩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중점적으로 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아름다움을 보고 전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예술적으로 승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적인 미디어를 통해 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리드해나가는 그룹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사랑해주는 작품, 모던 클래식으로 최고의 명품 드레스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기획전도 열지만 미스코리아, 수퍼모델들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고,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통해 보다 차원 높은 의상을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falling for EVE〉 뮤지컬에서 의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패션 협회 회장을 지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며 미스코리아 지정 디자이너,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선발대회 심사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차원 높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일과 미적 감성과 행복을 위해 작은 뜻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이화여대 동창들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화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대 동창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동질감과 유대감과 친밀감으로 무조건 거리

감이 없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이대의 자부심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절대적 가치로서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한 분 한 분이 더욱 노력하고 책임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이화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일들에 앞장서는 기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저의 일을 감동적인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가면서 이화를 빛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선주 / 볼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연집위원회

황재복 디자이너

이대 영문과(83), 디자인 대학원(와상 디자인 전공) 미술학석사, 성균관 대학원 예술철학과 박사,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Fashion Design* 수학 세명대학교 와상디자인과 겸임교수, 이대 패션 디자이너 협회(EFAD) 회장 역임 제18대 대한 패션 디자이너 협회(KFDA) 회장 수상/대한민국 패션대상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 패션대상, 섬유의 날 국무총리 표창



밸런트 한가인씨 웨딩드레스

나와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보영 선교사와 딸소영이

“우리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파푸아뉴기니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거의 매일 밤 열대 우림의 장대비가 시원하게 쏟아져서 이번 마을 생활 동안은 넉넉히 물을 사용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형제들이 성경 번역을 위해 제가 있는 캄바 마을로 오는 날 아침에는 늘 날씨가 좋아서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오는 다간틴과 렙스 두 형제가 오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1월에 이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와기 부족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세기의 일부

를 번역한 후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구주, 세례, 거룩, 영혼, 궁зал 등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 용어들을 접하며 어떻게 하면 그뜻을 와기 부족어로 온전히 번역할 수 있을지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역을 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그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 각각의 용어에 대해 저와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기도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 다섯 구절을 번역하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위 가운데 땀 흘려가며 이런 씨름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지난주에 ‘구주’(눅 1:47)와 ‘주리는 자’(눅 1:53)를 번역하던 중 우리 형제들은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은 “하나님께서 주리신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와기 부족어로 주리는 자(the hungry)는 ‘다나 라케 빼(danah lake qe)’ 또는 ‘다렉 다나(dare' k dana)’입니다. 번역을 하기 전 이 말들의 용례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뜻이 ‘쓰레기 같은 사람, 또는 게으른 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후, 주리는 자를 왜 게으른 자라고 부르냐고 물었을 때 이들의 문화 안에서 주리고 가난한 자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밭에 수확이 없어 주리고 가난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자연과 기후는 1년에 2~3번의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지런히 일만 하면 주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생각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이들 문화 안에서 매우 존경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어 성경이나 공용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하시고 부자는 빈손으



재혼에 성공한 와스페밀리 두가족

로 보내신다는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계으른 자를 도우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뿌리박고 있는 와기 부족 문화의 창으로 성경을 보았던 것이지요. 가난한자, 배고픈 자 등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으며 이는 계으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리고 소외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자 아도르프 형제가 환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도르프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한 도약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난한

자’라는 뜻의 오 두악 다나(o duak danah)를 와기부족어 가운데서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구주(Savior)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의 원천이 되시는 분(Danah foumak digu)이란 와기 말로 번역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이들에게 열린 책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에게 구주라는 의미는 공용어 성경에서 제시하는 뜻인 되찾는 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 전에 다른 자에게 넘겨주었다 되찾아온다는 정도의 의미였을 뿐입니다. 와기 문화 안에는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누군가를 죽음에서 구해내는 가치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란 의미가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



와스파파의 일하는 모습

던 것이지요. 성경을 번역하며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그 귀한 뜻들을 알아가는 값진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겨우 걸음마를 걷던 와기 부족의 네 번역자들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저와 함께 살며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족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와스파밀리라고 부릅니다. 지난 기도편지 사진에서 보셨듯이 우리 와스파밀리에는 와스마마가 없었습니다. 4년 전 병으로 아내를 잃은 와스파파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1월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4년 전에 전남편을 잃은 다른 지

방에서 온 와스마마가 막내 딸 메이와 함께 와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와스마마와 함께 열심히 밭일을 하고 첫 벼를 수확한 후 기뻐하는 와스파파를 보며 저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한 기계가 없는 이들은 벼 수확을 끝낸 후 낱알을 일일이 손으로 털고 물에 씻어 헛볕에 말린 후 도시로 가져나가 도정을 합니다. 저를 센터로 돌려보내기 전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먹이고 싶어한 와스파밀리의 사랑 덕분에 오기 전날 저녁은 새로 지은 쌀밥을 맛있게 먹으며 저희 모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와스파파의 동생 에숨입니다. 나면서부터 저능으로 태어난 에숨 형제는 현재 나이가 40대 후반이지만 지능이 6~7살 정도인데 다른 마을에 살고 있던 그가 우리 가족에 합류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요일이 되어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소에 소중히 간직하는 단 한 벌뿐인 셔츠를 꺼내 입고 단 한 켤레뿐인 운동화를 신고 동네 어느 누구보다 먼저 교회로 가는 에숨 형제는 예배 도중에도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일어서고 앉았다리를 반복하는 다소 복잡한 루터교 예배 내내 참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겸손한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의 말씀을 사는 에숨 형제를 곁에서 보며 불쌍한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의 와기 부족여인 오두막 다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이들의 문화를 보며 개별화되고 이기적이 되어 버린 우리의 문

화와 저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봅니다.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저같은 외부인조차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함께 나누고 사는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 주님이 이들 마음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살을 맞은 팔소영이

소영이는 지난 2월에 만 17살이 되었습니다. 마을로 떠나오기 전 제가 직접 솜씨내어 만든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삶과 17살이 되도록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감사와 함께 그리고 내년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머지 시간 안에서 소영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약 한 달 간의 한국 방문과 병원 검진을 통해 지난해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저나 소영이 모두 갑상선에 혹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간섭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소영이가 남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며 나머지 1년을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고 활짝 웃는 와스파파의 기뻐하는 모습과 잘 익은 황금 낱알들을 보면서 와기 부족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수확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잠시 생각합니다. 동역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와기 부족 안에서 열매를 거두시고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시리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간혹 와기 성경번역위원회 위원들 안에서 발견되는 죄들을 다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과 지내며 죄인들과 함께 사셨던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분의 거룩이 어떻게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을까가 내내 제 기도제목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은 회개가 와기 부족 안에서 일어나길, 그래서 회개의 열매 위에 성령의 임재가 와기 부족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뿌리가 박하고 터가 굳어지길 소망합니다. 살름!

선교일지를 정리 중인 에슈



C관에 묻은 내 청춘의 희로애락

손효경 /신방 73



“너희들이 어떻게 사회의 공기(公器)가 되겠어?” 학과장 교수님의 호통은 준엄하셨고 그 앞에서 서 있는 나와 육희는 잘못했다는 말도 못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곳은 C관 2층, 오른쪽 첫 방인 신문방송학과 사무실이고, 학보사 기자로 패기 만만했던 우리들은, 시사 영어 시험에 컨닝을 한 죄로 인해 한 학기 유급을 할지도 모르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다.

대학교 생활 중 가장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 나이 60이 지난 지금 이 순간 까지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그 날의 아침 햇살, 딱 하다는 표정의 주복순 조교 언니, 너희들 학보사한다고 수업 땅땡이 많이 치더니 잘 만났다고 벼르시던 윤희중 학과장 교수님의 큰소리, 한 학기 유급하면 너무도 나를 신뢰하시고 예뻐하시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 고민 하며 처량했던 상념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10여 년 전 윤교수님의 정년 퇴임식 때 우리는 그 때 그 일을 말씀드렸고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

했던 우리들과 달리 교수님은 기억 하시지도 않고 계셨다. 그 무서웠던 교수님은 사랑스런 할머니가 막 되신 참이었고 교수님의 퇴임사에, 50줄에 들어섰던 나는 한 여인으로서의 교수님의 삶에 마음 깊이 공감하며 눈물지었다. 1969년 신입생 시절 그기 나긴 학교 입구(석조 다방이 있던 육교 앞을 지나 황명 약국 지나 사진관 바둑이네 집을 지나면 정문 앞의 양대 산맥, 파리다방, 숙녀 다방을 지나야 겨우 이화교가 나오는데 양쪽 기찻길로 훙 맞뚫린 바람 쟁쟁 불던 이화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운동장을 끼고 돌담길을 비스듬히 올라가면 오른쪽은, 헬렌 동상, 본관이 있고 왼쪽으론 항상 스산하고 쓸쓸했던 나지막한 내리막길에 학생회관이 있었고 그 회미한 십자로를 지나면 저 멀리 C관이 후문 옆에 자리 잡고 있음)에서 C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먼 고행 길이었다.

다른 대학 건물들은 다 돌로 된 멋있는 건축물이었는데 C관은 시멘트로 지어진 기역자의 멋대가리 없는 건물이었고, 제일 학생 수가 많았던 문리대가 중심이 된 그 건물은 덩치도 크고, 항상 음습하고 어두운 곳이어서 우리들은 은근 불평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대학 생활은 학보사가 있던 본관과

수업을 들던 C관, 그리고 아지트였던 까치 다방(소설가 이제하씨 부인 행자언니가 운영했던)을 중심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 옥희, 영희 나는 강의가 끝나면 항상 바람이 불던 언덕을 올라 본관으로 가며 “왜 너만 항상 가운데 걸어가느냐? 공주병 아니냐?”는 유치한 다툼부터 사라진 애인에 대해 공동의 전략을 꼴똘히 짜기도 하고 때론 유신으로 삼엄했던 국가에 대해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도 했었다. 또 기억자로 이어진 404호 강의실이었나? 이곳은 경사가 지고 무대가 있어서 강당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열렸던 리더쉽 세미나에서 각 대학 리더들의 아이디어를 동원해 장기 자랑을 펼쳤는데 특히 그 때 정미조 (후에 가수가됨)를 중심으로 한 미대생들의 무대를 보고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용색해졌던 기억도 스친다.

길고도 파란 만장(내 대학의 여름 방학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 옮고 웃는 일들이 속출했다.)

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직 따가운 여름 GOT별이 남아 있는 C관 앞에는 싸르비아가 짤갛게 피워 돌아온 우리들을 맞아 주었다. 특히 C관은 후문과 곧 이어져 있어, 버스 한 대 지나면 먼지 풀풀 날리던 길 건너 연대로 우리의 행동반경을 넓혀 주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비밀스러웠던 연대로 이어지는 길은, 선교사들이 살던 서양식 돌담집들이 들판에 있었던 아름답고도 한적한 길이었는데 봄이면 벚꽃이 할텐데 피어서 마음의 행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했다.

지금도 나는 시험을 열심히 보며 재 취학을 하려고 애쓰는 꿈을 자주 꾸는데 배경이 되는 그곳은 어김없이 C관의 어느 어두운 교실이다. 기독교 문학 학점이 모자라 재시를 4차례나 C관에서 보았던 강박관념이 남아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 시절 너무 공부를 등한히 했던 후회가 밀려 와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청춘의 희로애락과 맞물려 있던 C관을 나는 세월이 지나도 못 잊을 것이다.



1970년 C관 앞에서 윤희중 교수를 모시고

자원봉사자가 만든 노인 평생 교육 시스템

이경희 | 가정관리 70,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장



런던U3A를 방문, Barry Rae 회장(79세)의 인내를 받은 필자(왼쪽)

노후에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까? 아마도 많은 은퇴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영국의 평생교육기구인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이 특별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교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의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은 당신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적인 원리는 U3A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즉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U3A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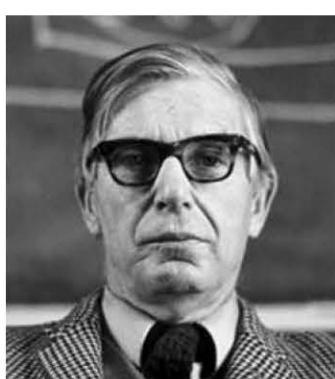
마침 지난 5월 초 런던을 방문할 일이 있어 U3A 런던 지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가기 전에 자료 검색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원래 U3A 평생 학습은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피에르 벨라(Pierre Vellas)가 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처음 제안했으며 Vellas는 프랑스 노인들이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 역시 젊은 이 못지않게 생활의 활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 노인들의 개인 개발 기회 제공, 노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노인 평생 교육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U3A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1973년 100명의 학습자로 시작된 U3A는 10년 후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U3A는 그 후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폴란드에도 설립되었다.

U3A가 유럽에서 시작된 이래, 1975년 미국의 대학들은 엘더호스텔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설을 이용한 노인들의 성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식 고등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노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 1달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고등) 교육의 기회를 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형태는 덴마크의 공민학교(Folk High School)의 프로그램과 Youth hostel의 운영 방식을 결합한 형태이다. 엘더호스텔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국의 프로그램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의 U3A는 특이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Peter Laslett이 캠브리지 지역에 이를 처음 1981년도에 구상하였고 런던지역에는 Brian Groombridge에 의해 이러한 교육이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들이 처음 생각한 것은 특히 영국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교육 철학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시스템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나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U3A 형태는 제2세대가 만들어주

는 교육을 제3세대가 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3세대가 스스로 만들고 제3세대가 스스로 교육



U3A 교육 창시자인
고 피터 레슬렛 교수(2002년 타계)



자원봉사자 사무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U3A 교육은 그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영국 전역에 798개소의 지부를 두었으며 회원은 26만 9천 7백 5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주제도 다양하여 역사, 철학, 예술, 무용, 체육, 정치 등 그 대상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U3A가 성장한 배경에는 몇몇의 혁신적인 지도자들과 분명한 교육 철학과 목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초창기에 이 교육을 제창한 피터 레슬렛 교수는 2002년 타계하였다.

U3A in London은 런던의 서북부 Hampstead 지

역의 옛 Town Hall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이곳은 런던에서 문화적인 향취가 물씬 나는 곳으로 많은 예술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단체가 모여 있고 또 런던에서도 가장 비싼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약속 시간이 되자 현재 회장인 Barry Rae씨가 리셉션에 나와 맞아주었다. 지하로 내려가자 미로로 한없이 들어가다 보니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자원봉사자 직원들은 소개해주었다. 한국에서 온 은퇴자로서 은퇴자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모두들 유쾌하게 웃으며 은퇴하기에는 너무 어려보인다고 농담을 하였다. 몇 가지 교육관련 자료를 찾아 건네주고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완전히 정부나 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그리고 조직 면에서 독립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책에 따라 바뀌는 사례가 영국에서도 빈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재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원들은 년 회비를 내며 저소득자에게는 약 1/3 정도의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는 무료로 1년간 들을 수 있다. 현재 이 Hempstead 지부와 같이 독립적인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드물며 거의 대부분의 지부들은 개인들의 집이나 도서관, 또는 교회 등의 공간을 빌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부의 회원도 한 20여명 되는 곳부터 런던과 같이 1600여명이 되는

곳 까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매우 단순하다. 종일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강의가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다. Rae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에 입회한 한 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얼마 전 어떤 여성이 회원이 되겠다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였는데 와서 보니 19세의 소녀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소녀는 회원이 되었고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러 과목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뿐 아니라 노인들도 모두 좋아한다고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160여 개로 철학, 언어, 심리학, 예술, 체육, 게임, 컴퓨터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문제 토론 반도 있는데 클래스에 올 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신문 기사를 오려 와서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많은 강좌 중에 요리나 바느질, 뜨개질 같은 것은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여럿이서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시설 내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한 커피와 케익 한 조각을 먹으며 Rae 회장과의 이야기는 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79세인 Rae 회장은 아직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야기 하는 내내 자신들의 성취에 대한 큰 자부심을 보여주셨다. 한국에서 U3A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려 한다고 하니 큰 관심을 보이셨으며 한국에서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주었다.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2

지금은 침묵할 때

천 양 희

시인 국문학 66

2011년 제26회 만해문학상

2007년 제2회 박두진문학상

2005년 제13회 공초문학상

1998년 현대문학상

1965년 현대문학 '정원 한때'로 데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시를 쓰는 시인이 있다
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자연을 찾아갑
니다. 자연은 자연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나의 하루
를 자연스럽게 해주기도 하고, 박실자연(朴實自然)
의 삶을 지향시키는 어떤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침묵을 가르칩니다. 자연 앞에선 쓰
는 말도, 하는 말도 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내 침
묵은 누구와도 닿지 않고, 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마저 정지된 듯 숨을 죽이고 빛깔은 분해되
지 않는 검은 빛입니다. 나 자신이 마치 그 속에 분
해되어 침묵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비로소 침묵이
내 것 같아집니다. 침묵과 한 몸이 되는 순간, 그 순간
간엔 속에서 꿈틀대던 어떤 욕망도 희망도 사라집

니다. 그럴 때, 침묵에도 수많은 말과 봄밤이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미 없는 어떤 봄밤도, 의미 없는 어떤 말도 침
묵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침
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고 스스로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내 영혼이 숨결에 이르듯이 마음이
활해지는 것입니다.

꽃이 나무의 상부에 피듯이 침묵은 내 마음의 상
부에 꽂처럼 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
겐 자연이 더없이 고맙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자
연 속에서 침묵을 배운 사람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없는 발로 걸어와서 그 모습을 드
러냅니다. 바람이 불기 직전의 고요가 가득한 숲
뒤에, 쓸쓸하고 가난한 세상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시인들 위에, 단절을 경험한 영혼들 위에 소리 없
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나는 문득, 침묵을 가장 잘 표현했던 웨브란트를
생각합니다. 심각하면서도 슬픈 표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금고 있는 슬픈 침묵이 떠오릅니다. 그
는 일생 동안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 속의 고독
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웬일
인지 나는 웨브란트의 그림 속 침묵을 생각하면 항상
무엇에 놀란 듯 마음 끝이 떨립니다.

장 그르니에가 '침묵을 완전히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은 웨브란트 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웨브란
트는 침묵을 정신의 밥으로 소화시킨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다면 그 사이에서
도 말보다 침묵이 소외의 벽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을 오를 때 한 발 한 발 옮기는 발걸음이 마음의 계단이라고 생각할 때, 유록색의 어린 나뭇잎들이 반짝거리며 바람에 살랑거릴 때, 나는 마음의 울창을 내려놓고 드디어 침묵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초월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없으리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응시할 때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란 없습니다. 세상이 공염불로 왁자지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구도를 위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는 수행자를 볼 때, 나는 그들에게서 깊은 침묵을 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또 그들에게서 깊은 슬픔을 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공포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침묵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통에는 한도가 있지만 공포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배우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암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침묵을 외면합니다. 두려움에 침묵이 얼마나 좋은 명약인지 알지 못합니다.

뽕나무 가까이에 오동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질이 물러지고, 포도밭 비탈에 느릅나무 고목을 심으면 포도가 잘 자랄 뿐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집니다. 그렇듯 두려움 가까이에 침묵을 놓는다면, 소란스런 세상에 길든 몸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연인들은 말의 표현보다는 침묵으로

서로를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정지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수령의 피라미드로 나타나는 낙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이갔듯이 침묵은 사랑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의 열 배 이상이 바닷속에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빙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이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거대한 말 둉어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뿐 말보다 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만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먼 시골이나 전원 같은 곳에 만 있는 것이라 잘못 생각합니다. 침묵은 언제나 시끄러움 뒤에 있습니다. ‘침묵이 불번다’는 모순 어법이 생겨났을 정도로 시끄러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은 강한 것입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둘 뿐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파괴는 나의 베아트리체’라고 말한 시인이 있다면 ‘침묵은 나의 베아트리체’라고 말하고 싶은 시인도 있습니다. 침묵도 아름다움인데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파괴해 버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시끄러움 때문입니다.

침묵을 알고 난 뒤에야 세상의 시끄러움의 의미도 알게 되고 스스로 화이부동하게 됩니다. 침묵을 마음속에서 꽂처럼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은 금이란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속에 묵언, 묵상, 묵념, 묵도 같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문 입이 왜 꽂잎처럼 이쁜가요. 아이

들은 말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면 꽃이 머금은 습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도 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만발하면 자칫 망발이 되고 구엄이 됩니다.

묵언하면 침묵이 되고, 침묵하면 묵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나는 자주 산에 오릅니다. 묵묵한 바위 위에 앉거나 나무 뒤에 나무처럼 붙어서 고요한 숲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하지도 개심하지도 못한 여러 일들에 대해 침묵함으로 참회합니다.

게기풀을 물며 소리쳤던 세상에 대해, 죄 없이 죄인처럼 살았던 날들에 대해, 진실하지 못하다고 질책한 사람들에 대해, 말보다 나은 침묵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던 어는 시인의 말을 곱씹어봅니다.

그래 맞아!라는 말을 마음속에 굴리며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날아가는 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직도 나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확 바꾸지 못했던 말인가. 무엇인가 말하면서 말의 흔적을 남기려한 건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시인으로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영양이란 짐승은 잡을 잘 때, 적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꼬부라진 뿐을 나무에 걸고 허공에 매달려 잡니다. 영양의 발자취만 보고 따라 가다간 어는 순간 발자취는 끊어져버리고 영양은 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인이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영양의 발자취일 뿐, 발자취가 끝나는 곳에서도 영양은 그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봉존자의 <전등록

傳燈錄>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뿐을 걸듯, 말하지 않고 말하기란 바로 침묵이 아닐까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침묵 속에 잠깁니다. 내 영혼은 갑자기 숲의 고요로 뒤틀이고 생각은 나뭇잎처럼 바람에 떨립니다. 산의 저 장엄한 침묵 속으로 끌어오르는 열망과 살림(生)의 뿌리를 한 그루 나무를 심듯 심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나의 침묵 속에서 느닷없는 허무 때문에 가슴이 찢깁니다.

능선이 찢어지도록 소리치고 싶은 어떤 소리가 침묵 속으로 잣아듭니다. 왜 나는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진리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내가 구하고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침묵이 되치는 이 소리에 응답할 구원의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벨은 내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저지른 일에 내 마음을 다치는 이 어리석은 중생. 우리에서 나와 처음으로 들판을 달리는 어린 짐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오솔길을 따라가면서 생각해봅니다.

침묵으로부터 얻은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나무이듯이 침묵은 드러내도 침묵일 뿐입니다. 나는 어떤 공간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침묵합니다.

침묵은 나를 가득 담아내는 그릇이며,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게 하는 가장 큰 말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순교자 같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시끄럽고, 뚜렷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이 남았으니 지금은 침묵하라는 듯.



총동창회 소식

이화인의 재능 기부에 '이화법조인회' 앞장서

지난 9월 19일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동창 변호사들의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나선 자원봉사단의 발대식이 있었다.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화인의 재능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후배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위해 24명의 변호사 동창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위대함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특별히 법조계에 계신 동창들께서 함께 해주신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같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귀한 일일 것'이라 치하하고 '아무쪼록 이러한 재능 기부가 다른 모든 것에도 이어져 이화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웃 사랑의 훌륭한 표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모교가 준비한 이번 발대식 행사에는 김 선우 총장을 비롯하여 송덕수 법제처 원장 등 모교 관계자들과 총동창회 임원, 각 대학 회장 등이 함께 자리하여 법조계 동창들의 뜻 있는 참여에 많은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 참여한 법조계 동창들은 이화여대 동문 홈페이지(이화인닷넷) 내 법률상담서비스 코너(바로가기▶)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교내에서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연륜 있는 선배 변호사들은 학교 법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총동창회 임원 초청 ‘파주 단지 백지화’ 학교주최 간담회 모교계획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모아

8월 30일 ECC극장에서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백지화와 관련하여 총동창회 전, 현직 임원들을 초청한 학교주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서 총동창회는 파주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 철회 과정과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한 학교 측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학교는 파주 캠퍼스 계획을 수정하여

신촌 캠퍼스를 1백프로 활용, 필요 건물 신축과 더불어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참석 임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장시간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임원들은 진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하였고 참석한 모든 임원들과 총동창회는 모교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하였다.

김선옥 총장 취임 아래 학생, 교직원, 동창 등 이화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화인의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모교는 상반기에 음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재능기부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직 동창들이 나선 것이다. 박동숙 대외협력처장은 ‘이화 법조인회에서 먼저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 시작된 이번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이화인 재능기부가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이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 법률 상담 위원

곽배희(한국가정법률사무소)

법률 자문위원 동창

이선희(이선희 법률사무소),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양정숙(법무법인 서울중앙), 윤석희(법률사무소 지우), 최현희(법무법인 민), 태지영(법무법인 동인), 이영희(법무법인 바른), 송영숙(법무법인 정률)

법률 상담위원 동창

김수연(김수연 법률사무소), 김미진(김미진 법률사무소), 박선영(법무법인 나우리), 천정아(법무법인 다온), 박혜원(박혜원 법률사무소), 이종수(법무법인 대세), 최지희(법무법인 지음), 최윤정(법무법인 다온), 이지연(법률사무소 아래), 이해진(법무법인 나우리), 유정아(법무법인 누리), 최수진(법무법인 장백), 조명선(법무법인 장백), 류혜민(법무법인 정원), 유승민(바로 법률사무소), 설해원(설해원 법률사무소), 임남향(법무법인 양현), 조은선(조은선 법률사무소), 김보금(김보금 법률사무소), 김정화(소민 합동법률사무소), 박순영(법무법인 마당), 박효서(법무법인 여명), 이소정(법무법인 에이펙스), 이지은(법무법인 동서남북)

제7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선정 위원회 구성 및 후보 추천

9월 8일 임원회에서 '아름다운 이화인 선정위원회' 9명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11월 28일 개최하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게 될 이번 '아름다운 이화인' 후보 추천은 지난 8월 26일 마감되었으며 추천 후보는 총 8명이다. 아름다운 이화인 선정위원회 /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 회장,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 박유나(도예 81) 총동창회 부회장, 박경임(식영 73) 총동창회 문화부장,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위성숙(약학 73) 총동창회 지역부장, 이숙자(수학 73) 자연대학 회장, 박동숙 모교대외 협력처장, 박성희 모교기획처부처장(홍보 담당)

'아름다운 이화인' 후보자



임찬희 (보건교육 78) –
파주시 문정교회 담임목사
로 학교에서의 인재양성과
선교사역으로 예수님의 섬
김과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
다. 현재 문산읍 문정성결교회 담임목사이며 문산
주변의 노인 무료급식 봉사를 수년간 하고 있다(매
주 토요일).



박문이 (사회복지 63) –
사단법인 씨알여성회 상임
이사 대학교수 은퇴 후 경기
도 광주지역 사)씨알여성회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소와 광주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여
성인권향상과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광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며 여성복지 및 인권향

상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헌신적인 활
동을 하였다.



문영자 (영문 67) –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졸
업 후 휴스톤에서 지역사회
를 위해 자원봉사했으며 10
여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2003년부터 부군과 함께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
서 영어독해, 미국문화, 상무영어 작문과 국제 상
무영어를 가르쳐 왔고 작년부터 평양 평양과학기
술대학교 영어과, 경영학과 교수로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여 젊은 엘리트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혜정 (관현 82) – 캐나
다 뮤즈 한국청소년 교향악
단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뱅쿠버 한인청소년 교향악

총 동 창 회 소 식

단을 창단하여 1.5세와 2세들에게 연주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 소양을 개발하고 지역문화발전과 교류에 이바지. 음악을 통해 한인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 경희 (특수교육)

84)- 인터서브선교회 선교사이인 부군 양승봉 외과 전문의와 함께 2년 선교 훈련 후 17년동안 네팔에서 선교사로서 소임을 충실히 있다. 네팔의 소외된 사람들과 네팔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며 사랑과 섬김으로 17년간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김경희 (작곡 78)-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회 회장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봉사를 다방면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봉사의 달인이다.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군인교회 봉사, 83 Miss Young Inter대회 봉사, 88 장애인 올림픽 자원봉사단, 아가페 의료 선교단 미용봉사, 캄보디아 Holt Dream Center봉사등 크고 작은 봉사를 통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장화인 (심리 69) -

AWCA(미주 내 YWCA) 이사장으로 30년간 기독교 여성운동을 통하여 AWCA를 설립,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

는 여성사회를 봉사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AWCA는 기독교 정신으로 전문 상담과 사회복지,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인생활과 지역사회를 돋는 것을 목적으로 30년 열정으로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병주 (불문 62) - 파

리7대학 한국학과 명예교수로 파리 국립 대학교에서 최초의 여성한국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파리7대학 교동양학부 한국학과에서 최고 수준의 한국학 강의를 하였으며 40여년간 한국학계(한국어 보급 뿐 아니라 한국문학, 고전, 현대문화)를 프랑스에 널리 알려왔다.

역대 수상자

- 1회 2005년 박진숙(심리 58) 부산매실보육원 원장
- 2회 2006년 김행자(불문 64) 광주 로렌시아의집 원장
- 3회 2007년 방숙자(정외 56)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 4회 2008년 윤애리나(간호 59) 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 5회 2009년 박양미(제약 82) 아프리카 선교사
- 6회 2010년 강선희(법학 61)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원봉사

선교부 소식

‘선교부수련회’로 귀중한 시간 가져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시 다락방에서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8월 9일에는 특별히 ‘선교부 수련회’로 모였다. 새문안교회 이주형 목사가 ‘성경타고 이스라엘 여행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비 신앙적 요소를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국 방문 중인 서은주, 김효수, 진은현, 이철희 선교사와 기도모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하여 강의도 듣고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한편 강의를 들은 후에는 두세 명으로 그룹을 지어 이화동산 기독처 순례를 하였고, 2011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을 각 기독처에 배부하고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화 기도처

애다 기도실 (본관)

중강당

대강당

팔복동산

다락방전도협회 예배실

학생 문화관 기도실

사범대학 기도실

한우리 기숙사 기도실 (승민 기도실)

대학교회 예배실

의과대학 기도실 (목동병원)

이화역사관 기도실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간호대학

회장/김진향(간호 73)

제50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3회, 23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

지난 2월 11일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김문실 교수의 퇴임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교수진과 연구원, 동창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문실 교수는 이후 명예교수로 임용되었다.

한편 간호과학대학 동창회는 5월 31일 헬렌관에서 정기 총회와 함께, 50주년 및 30주년 동창 재상봉 행사를 가졌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3회 동창 8명과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23회 동창 26명이 재상봉 행사에 참석하여 발전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표했다. 또한 동창들은 감사의 뜻으로 간호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탁하였고, 이날 모든 동창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0주년 재상봉을 기념하여 최심영 간호대학 동창회장과 양숙자 간호과학부 학부장의 환영의 말씀이 있었고, 건강과학대학 교수인 12회 이자형 동창이 축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우리들의 학창시절”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슬라이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동창회장으로 김진향(안산1대학 교수) 동창이 추대되었다.

뉴욕동창회 개최

7월 15일 간호대학 뉴욕동창회(회장 윤수진, 73년 졸업)가 Flushing에 있는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뉴욕동창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동창회는 특별히 뉴욕의 Elmhurst Hospital Center에서 정신 전문 간호실습을 위해 7월 9일~22일까지 대학원생 14명과 함께 뉴욕을 방문하는 이광자 교수의 일정에 맞춰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동창회에는 1회 홍종순 선배로부터 50회 신지원에 이르기까지 50년의 기간을 아우르는 동창들이 참석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토의를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회장 / 권성숙(약학 70)

약대 동창회 소식지 발간

8월 8일 약대 동창회 약사부(부장 김순옥, 차장 이시영)는 학술부(부장 김화정, 차장 하현주)와 함께 약대 동창회 소식지 제 29호를 발간하였다. 소식지는 회원 2312명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이번호는 특히 개인 동창의 소식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지면을 늘려 '선교부 탐방', '50주년 재상봉 기념행사를 마치고' 등을 실었다. 또한 '이화 사랑 약대 장학금 약정 현황'을 표로 만들어 게재하고 사진도 많이 실어 보다 새롭게 꾸며졌다.

음악대학

회장/방명혜(기악 67)

홍한재단 동판제막식

9월 23일 음악대학 보수 기금을 후원한 홍한재단을 기념하는 동판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홍한재단 박병석 이사장과 정소영 동창(기악 62)이 지난 5월 본교를 방문해 음악대학 보수기금을 쾌척하였고 이번 학기부터 음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실시되었다.

홍한재단의 후원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음악대학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4개 층홀과 70여 개의 연습실에 냉난방기 설치, 연습실 출입문 보완공사, 천장재와 바닥재 교체, 도색 공사, 가구 교체 등 음대 연습실 환경이 전면적으로 크게 개선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이사장 부부의 후원에 감



사하기 위해 김선욱 총장, 이경숙 학사부총장, 장혜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음악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흥한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이 참석해 플루트 4중주, 성악 공연 무대를 마련했으며 박 이사장 부부에게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김선욱 총장은 “이번 흥한재단의 후원은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을 넘어 ‘아름다운 음악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 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선배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그 사랑으로 단장된 공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의 학생들이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이사장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오늘이라고 말하겠다.”며 “이렇게 소중한 기억을 남겨 준 이화여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연과학대학

회장/이숙자(수학 73)

정기 임원회 및 정기총회 개회

6월 7일 우미각에서 정기 임원회를 갖고, 6월 13일에 있을 정기총회 준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13일 이화 삼성 문화관에서 열렸던 정기총회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 개회예배, 2부 총회, 3부 수학과 23회 김정



민 동창의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특강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송순희 교수, 이기호 교수, 홍영숙 교수를 비롯하여 50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불문과

회장 장혜경(73)

강미영 동창에 감사패 전달

8월 17일 압구정동 한일관(불문과 24기 김은숙, 27기 김이숙 자매가 경영)에서 격월제로 있는 간사 모임을 갖고 전 회장인 강미영 동창에 그동안의 동창회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현 회장인 13기 장혜경 동창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사학과

회장 이혜옥(74)

총회에서 임원진 연임 결의

6월 9일(목) 경기도 남양주 실학박물관에서 60여명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이혜옥 회장(16회) 및 임원진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서양화과

회장 김효정(77)

이천서 야유회 가져

6월 16일 경기도 이천의 전지원 회원 개인 화실에서 동창회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3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우정을 나누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74)

18대 임원진 임원회의 및 임원추가구성

6월 7일 제 18대 언홍연 동창회 임원진이 한우리 한정식에서 첫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박화숙 회장, 안계상(11회), 우연옥(12회) 부회장, 이란 총무, 고월출 재무, 이은경, 송유리 홍보가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세대를 아우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동창회와 모교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화숙 회장은 사회과학동창회 회의 전달사항을 전하고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동창회보 발간과 바자회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향후 활동계획으로 동창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언홍영 동창회 홈페이지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6월 28일(화)에는 인사동 백상빌딩에서 18대 임원진이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박화숙 회장과 우연옥 부회장, 이란, 이은경, 송유리 임원이 참석하여 <시녀어 저널> 반송우편물을 확인하고 동창회 명단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 총무가 통합 주소록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남가주 지회

회장: 오명애 (장미 74)

임원회의 개최 및 하반기 행사준비

6월 11일 동창회 임원진인 오명애 회장, 김정순부회장, 장경해 사업부장, 이해원 동창 등이 연대, 고대 및 타 대학 대표들과 함께 Pacific Palms Resort에서 열린 서울대학 미주총동창회 11대 김은종 회장 취임식 겸 제 10차 평의원회에 참석했다. 7월 27일에는 제 4회 임원회가 라미라다의 르네상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1년 중간 회계보고 및 패션쇼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올 하반기 행사인 9월 21일 골프대회, 10월 27~30일 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12월 11일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다운타운 쉐라톤 호텔), 2012년 1월 10일 경에 있을 본교 무용과 발레 공연(Messiah)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8월 18일에는 제 5회 임원회가 부에나 파크의 Seventh Home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9월 21일 Westridge Golf Club에서 있을 제 9회 총장배 골프대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가비, Hole Sponsor 비, 2개 신문사 광고와 기사, 그리고 행사후 기사, 전체 이메일과 사전 모임, 기념품 준비 등, 전반적인 것들에 관한 자세한 토의가 있었다.

한편, 8월 26일 발레 "메시아" 남가주 공연을 위



해 미국에 온 신은경 교수의 환영만찬이 세리토스의 마카로니 그릴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선배인 정태숙 동창과 김봉덕 동창, 오명애 회장, 정현숙 총무가 참석했다. 1월 10일 경에 있을 발레 공연을 위해 Cerritos Performing Art Center를 답사한 신은경 교수는 공연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화의 사위인 남용화 님도(정태숙 동창 부군) 참석하여, 이번 발레 공연에 3만 달러 정도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뉴욕 지회

회장: 유덕향 (약학 71)

각 지역 모임 활발히 활동

6월 15일 중부 New Jersey 지역 모임이 지역대표인 강정립(85 초등교육) 동창 자택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80/90년대 졸업한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였는가 하면, 동창모임에 처음 나온 동창들도 많아 동창회 소개와 개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후식 후 line dance를 하면서 Dance Club에 대하여 의

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7월 22일에는 총무인 박영숙(86 경영) 동창자택에서 임원들이 모여 1,000여명의 뉴욕 지회 동창들에게 Newsletter를 발송하였다.

또, 7월 28일 Long Island/Queens 지역 모임이 서기로 봉사하고 있는 김성혜(85 서양화) 동창 자택에서 있어 함께 barbecue를 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고, 8월 13일에는 Manhattan 지역 모임이 지역대표인 한국희(80 법학) 동창 자택에서 준비되었는데, 이날 1949년 졸업하신 선배님부터 2011년 올해 졸업생까지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편, 8월 13일 Scholarship committee에서는 매년 수여하고 있는 뉴욕 지역 장학금 I을 받을 교포 자녀 대학생 2명을 선발하였다. 모교를 졸업하고 뉴욕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1명에게 주는 뉴욕 지역 장학금 II는 applicant가 없어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9월 13일 정기 모임 (Manhattan), 9월 17일 다섯



번째 북부 New Jersey 지역모임, 9월 24일 두 번째 Staten Island 지역 모임이 정은숙(77 도서관학) 동창자택에서 열렸으며 10월 23일 뉴욕동창회 연례만찬 (DoubleTree Hotel, Fort Lee)이 있을 예정이다.

뉴질랜드 지회

회장문정아(제약 82)

2011년도 2차 모임 가져



본교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선배라면'에 대하여 문정아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2011년도 2차 모임이 6월 14일 노스쇼어 알바니에 위치한 Fat Boy에서 있었다. 저녁시간의 모임으로는 처음 진행되었지만, 이날 가장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교우간의 친목도 모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클럽모임에 대한 설명과 활동보고가 있었다.

클럽 활동으로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북클럽의



북클럽회원들의 월례모임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비가 잦은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Activity 클럽도 마카다미아 농원과 온천욕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피해를 입은 교민을 돋기 위해 열린 5월 한인의 날 행사 바자회에서 거두어들인 수익금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도 이루어졌다.

이날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 분들을 위한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윤희자 동창이 참석하여, 문화센터에 대한 정부보조가 취약함을 지적하며, 동창들의 경제적 도움과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미네소타지회

회장 이은영(가정관리 71)

한국 국악 예술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5월 19일 이은영 회장 자택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구자영 님으로부터 행복론 강의를 듣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7월 8일에는 한국 국악 예술단을 위한 파트락 저녁을 심현숙 동창 자택에서 가졌다. 동창회는 한국 국악 예술단으로부터 지난 4년간 둘심양면으로 도와준 노고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보스턴 지회

회장 : 조수현(수학 76)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개최 예정

10월 27(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보스턴의 Westin Waltham Boston Hotel에서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가 있을 예정이다. 10월 28일 총장과의 만찬과 29일 대만찬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 세미



나 강사로는 64년 영문과 출신 윤정자(김정자) 동창이 종이접기 강의를, 86년 성악과 출신 최신자 동창이 성악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소영 변호사(신방 79)의 미래를 위한 강의와, 한나리(체육 92) 동창과 함께하는 웃음과 행복의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10월 27일에도 동창들로 구성된 보스턴 이화바이올린 쿼텟과 소프라노즈의 음악 및 각 지회에서 마련한 원더풀 탈랜트 쇼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10월 28일에는 미국 역사의 시발점인 Plymouth에서 400여 년 전 필그림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10월 29일은 보스턴의 교회들과 독립선언문을 읽은 Old State House, Quincy Market, Boston Harbor, Boston Public Garden에 이르는 Freedom Trail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10월 30일은 예배와 함께 총장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며, 데이비드 소로우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Concord의 Walden Pond로의 상쾌한 산책도 할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동창들의 소중한 글들과 기회소식

이 담겨 있는 북미주지회 연합회지를 오천여 동창에게 발송하였다. 표지는 보스턴의 조진숙 동창(섬유예술 94)이 맡아주었고, 배한원 편집장(도서관 91)이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부산지회

회장: 하은숙(동양 69)

12월 6일 총회 개최 예정

6월 7일 신·구임원 취임식이 있었으며 10월 4일~5일 이화여대 수련원에서 이사 20여명이 단합대회를 가졌다.

한편 12월 6일 오후 6시 코모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북가주 지회

회장: 조성연(사회 90)

정기모임에서 북미주지회연합총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가져

6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Modern Art Museum에서 조찬을 한 후, 박물관에 소속된 Art Docent의 안내로 현대 미술을 관람하였다. 아침에 내리는 비와 현대 미술이 어우러져 기억에 남을 문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7월 2일에는 동창들과 가족들이 서니베일 시에 있는 오데가 공원에 모여서 바베큐를 즐기면서 이



탈리안 게임인 Bocce Ball 경기를 하면서 여름 오후을 함께 즐겼다.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여름 날씨와 선후배간의 정겨운 대화 속에서 여름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8월6일 샌리 엔드로에 있는 한식당 한대감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10월로 다가온 북미주 지회연합총회에 대한 참가 신청 방법 및 여행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올해 총회는 10월 27일~30일 기간 동안 본교와 총동창회 뿐만 아니라, 국제재단 이사회와 함께 일정이 준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하는 자리 를 가졌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 조성숙(가정 64)

합창단 조직하고 활발히 활동

금년 사업의 하나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한 달에 2번 격주로 모여 한 시간씩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합창 연습의 성과는 오는 10월27~30일에 있을 Boston 총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올해가 가기 전 준비한 합창곡을 가지고 양노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달에 한번 모이는 (매월 2째 주일 오후 1시30분) 지회 모임에도 동창들이 성실히 참여하여 선후배 간의 우정을 다지고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

9월 11일 모임은 고국의 명절인 추석을 함께하는 잔치로 정겹고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워싱톤 DC 지회

회장: 이영주(간호 72)

임원회 및 회칙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 열어

7월2일 임원회를 갖고 이화여대 전 총장이셨던

국 내 해 외 지 회 소식



이배용 전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7월 13일 이배용 전 총장께서 워싱턴을 방문, Korean Bell Garden에서 강연을 하였고 우래옥에서 동창들과 만찬을 가졌다.



7월 9일에는 최영(교육 75, 재부 회계) 동창 자택에서 Ewha Tasters Club을 개최하였다. Spanish 요리인 Chicken and Seafood Paella를 최윤희(전산 89) 서기의 가르침으로 함께 만드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7월 23일에는 Virginia의 온마을 장로교회에서 문남희(성악 84) 음악부장의 지도하에 Ewha Glee Club의 합창 연습이 있었다.

한편, 8월 27일 회칙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회칙 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명지(영문 67) 동창이 수고하였다.

앞으로 있을 행사로는 9월 14일 Marth's Table에 방문할 예정이며 10월 보스턴에서의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참석과 12월 총회 및 연말파티가 예정되어 있다.

토론토지회

회장: 공영희(생미 71)

Art Gallery of Ontario 미술관 관람

6월 15일 토론토의 명소 Art Gallery of Ontario(AGO)에 11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미술 감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관에서 Volunteer를 하고 있는 공영희(생미 71) 동창의 안내를 받으며, 건축가 Frank Gehry가 증축 설계한 역사 깊은 AGO 건물의 내부 구석구석까지 둘러본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에 Edward Garden에서 산책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는 종종 유인희(체육 56) 동창이 참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체조를 하며 건강과 선후배의 정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6월 15일 AGO에 참석한 토론토지회 동창들



홍콩 지회

회장: 이명희(무용 64)

한국국제학교(KIS)에 기부금 전달

지난 7월 홍콩 지회 동창회 소속 동호회 파랑회는 홍콩 교민의 사랑과 열정으로 세워진 한국국제학교 (KIS)의 정문과 담장을 미화하는데 쓰도록 HKD 30,000를 기부함과 더불어, 파랑회 동창들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과 함께 교문 및 담장 꾸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한편, 8월에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주최로 정미령 박사(교육학과 66)를 초청하여 홍콩 총영사관 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현대인의 지능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 홍콩 지회 동창들 및 홍콩 교민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의 후 정미령 박사와 동창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모교소식

2010 후기 학위수여식



1,724명의 이화인,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다
본교는 8월 26일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880명, 석사 761명, 박사
83명 등 총 1,7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선욱 총장은 졸업 식사를 통해 “125년의 이화
에서 졸업이라는 성취를 이룬 여러분 모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이화에서
갈고 닦은 섬세한 지성과 치열한 도전정신으로 미
래를 열어가라”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3명의 EGPP 장학생
이 학사모를 썼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딜로럼
라드자보바씨(Radjabova Dilorom Chulievna,
언론홍보영상학 석사과정)는 모국 우즈베키스탄
의 여성위원회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금의환향의
꿈을 이뤘다.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
램)는 이화여대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으로 육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딜로럼씨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위원회는 각계에
서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이 모여 국가를 위해 봉사
하는 정부 소속 위원회”라며 “우즈베키스탄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 이화여대의 교육에 대한 신뢰와
명성이 높아 졸업 후 바로 임용되었다”며 기뻐했으
며 “무엇보다 모국에 돌아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은 만큼 한 사람의 이화인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날 졸업식에서는 72
세에 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왕희자(국어국문
학 전공)씨가 단상에 올라 졸업생들의 큰 박수를 받
았다.

김선욱 총장, '캐나다-한국 과학기술 컨퍼런스' 참석

이화의 역사는 한국 여성과학의 발전사

김선욱 총장은 8월 7일~9일 개최된 '캐나다-한국
과학기술 컨퍼런스(Canada-Korea Conference,
이하 CKC)'에 참석했다.



'CKC 2011'은 캐나다와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자협회(이하 AKCSE: The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등록인원만 230명, 관람객까지 합치면 400여명에 달해 캐나다와 한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넓혔다.

김총장은 7일 여성과학자(WSE: Women in Science & Engineering) 세션 축사 및 8일 공식 만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박사를 배출하고 최초의 여성병원을 개원하는 등 과학과 기술 분야를 선도해온 이화의 역사가 곧 한국 여성과학의 발전사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학제간 융합분야의 연구와 세계적 기업 솔베이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이화가 진행하고 있는 과학 기술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화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늘 최초의 역사를 만들 어왔듯이 한국의 노벨과학상 1호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진 자연과학대학장은 BAS(Basic Science) 세션에서 나노분야 학술발표를 진행했으며, YGR(Young Generaiont Research & leadership) 세션에서는 본교 배지연(생명·09),



이은혜(수학·08), 성은규(화학·08), 이민지(화학·08), 석지수(화학·07) 학생이 발표, 그 중 배지연(생명 09) 학생이 'YGL Best Paper Awards'를 수상하는 등 과학 이화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김총장은 'CKC 2011' 외에도 8월 6일(토) 총동창회 밴쿠버 지회 동창 60여명과 만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철규, 김명준 의학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본교의 비전에 대한 간담회 및 질의 응답을 가졌다.

박물관 전시 신규 오픈

백년가약(百年佳約), 한·일 혼례문화에 담긴 마음박물관은 9월 2일 2011 가을 특별기획전 '百年佳約-한·일 혼례문화에 담긴 마음' 전을 포함해 4개의 전시를 동시에 오픈하고,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오진경 박물관장(미술사학과)의 인사말에 이어, 박미자 교수(성악전공)와 단국대 이영화 교수의 축

하 공연(사랑의 묘약' 중 사랑의 이중장)과 전시 관람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개막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욱 총장, 이경숙 학사부총장을 비롯 상명대 이후지 박물관장, 프랑스대사관 프랑스와즈 갤러(Francoise Guelle) 대학교육협력담당관, 한국자수박물관 허동화·박영숙 관장, 국립민속박물관 이난영 유물과학과장 등 교내외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획전시관에서 진행되는 '百年佳約- 한·일 혼례문화에 담긴 마음' 전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혼례관련 유물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백년가약의 의미와 미의식을 볼 수 있으며, 현대미술전시관에서 진행되는 '테크놀로지, 전통을 만나다' 전은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서도 옛 전통의 정신을 담는 작품들을 선별한 특별 전시로, 전시기간은 올해 12월 24일까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영문·사학·사회학·수학·환경공학 평가 최상위

중앙일보는 9월 8, 9일 양일간 전국 4년제 대학의 17개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과평가 결과 본교 영문과·사학과·사회학과·수학과·환경공학과가 학과별 평가 최상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철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다섯개 학과가 상위 등급에 랭크됐다.

교육환경, 교수역량, 재정지원, 교육효과 등 4개 부문 12개 지표에 준해 인문사회계열 9개, 이공계열 8개 학과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한 학과 평가에서 본교는 인문사회계열에서 3개, 이공계열에서 2개의 최상위 평가 학과를 배출했다. 이 중 사회학과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저력을 과시했고, 영어영문학과와 사학과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최상위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기획처 한유경 평가부처장은 "인문·사회계열 6개 학과—영어영문학과(최상)·사학과(최상)·사회학과(최상)·철학과(상)·경제학과(상)·심리학과(중상)가 전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본교 교육 시스템의 수월성을 입증"했으며 "자연·이공계열 학과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연구비 수주와 장학금 지급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로 지

도 시스템과 커리어 멘토링을 실시해 전공 분야 진출을 장려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했다.

이화, 장학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장학적립금 2천 억 원 조성,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이화미래인재전형 등

본교는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인 2097 억 원의 장학적립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10 회계연도 기준 전체 적립금 6569 억 원의 31.9%로, 기존 장학적립금의 3배 규모다. 또한 장학적립금의 연간 운용 수익 60 억 원을 교내 장학금으로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2 학기에만 30억원의 장학금이 증액되며, 향후 매년 10 억 원씩 늘려 2015년에는 총 410 억 원을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012학년도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화미래인재전형’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만나게 된다. 여성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 이 전형을 통과한 학생 전원은 등록금 전액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 50만원과 기숙사비를 풀 패키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생활비까지 포함하는 장학금은 국내 종합대학 중 이화가 처음이다.

이화복지 장학금과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도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학교생활을 돋고 있다. 특히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는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된 등록금 긴급지원 제도로,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중 1:1 맞춤상담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학 국가근로 안내, 식권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011학년도 1학기까지 총 423명이 상담해 혜택을 받았다.

이대동문연극회, 연극동아리 공연 지원금으로 4천만원 전달

9월 29일 이대동문연극회(약칭 이연희, 회장 /명 인서.국문 77))가 ‘연극 공연 발전기금’ 사천만원을 본교에 전달했다.

이연희는 연극을 사랑하는 동창들이 모여 1996년에 창단한 모임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故 김활란 총장을 추모하며 <꿈꾸는 거인, 활란>을 공연하기 도 하였다. 이 기금은 본교에서 연극을 하는 학생과 단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본교에는 현재 총연극회와 인문극회를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 연극동아리가 있으며, ‘연극의 이해’ 등 연극 관련 수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연희는 이번 발전기금 전달이 후배들이 연극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로 작용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2011 대학원 FAIR'

대학원 진학, 교수와 1대1로 상담

본교 대학원은 9월 23일 ECC 다목적홀에서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 전공박람회 '2011 대학원 FAIR'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일반대학원 소속 52개 학과(부)와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6개 전문·특수대학원이 참가했다.

'대학원 FAIR'는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술활동과 대학원 생활,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수님과 1:1로 상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공주 대학원장은 "교수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던 학생들에게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과 진로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

족도가 높다"며 "원래 봄학기 한번 개최를 계획했던 행사이인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2학기에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학원장은 학생들의 이러한 만족도가 실제로 2011년도 상반기 본교 대학원 입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귀띔했다.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북한학협동과정 상담을 받은 전은진 씨(09)는 "상담을 통해 북한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을 알게 됐다"며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진로 고민을 하던 차에 교수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서 좋았다"고 했고 김한솔 씨(영문·10)는 "아직 저학년이라 행사 참여를 망설였는데, 상담해주신 영문과 교수님께서 학부기간 동안 많은 책을 읽으며 영문학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고 조언해주셨다"며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재교육협동과정 상담을 진행한 김진 씨(석사과정 3학기)는 "과정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부는 물론 본교 재학생들도 영재교육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학기 행사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중 다수가 영재교육협동과정에 진학하는 등 '대학원 FAIR'가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창소식

졸업연도순제재

명자혜 (정외 66)

제 37회 ‘부산미술대전’에서 명 동창의 한국화가 문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미술대전은 7월 22일~8월 21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호가 연당인 명 동창은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이며 죽농서단(영남서예협회) 이사이다.

이정자 (기독 66)

이대 동창 문인회 이사이며 시조 시인이자, (사)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인 이 동창이 지난 8월 24일~9월 4일까지 대구역 열리미술관에서 대구 본부와 공동주최로 열린 ‘2011 대구 세계 육상대회기념 시조작가초대전’과 9월 7일~27까지 신경주역 맞이방에서 펼쳐진 “세계문화와 스포츠 기념 시조작가초대전”에 참여하였다.

이경혜 (간호 68)

이대 교수로 38년 6개월 동안 후학 양성과 여성 건강 간호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활동 및 조산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 동창의 정년 퇴임식 및 저서 ‘아름다운 폐경’ 출판 기념식이 6월 29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한편 이 동창은 지난 3월 16일 그동안 조산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조산협회 제 62회 대의원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배용 (사학 69)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인 이배용 전 총장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1 국가브랜드 컨벤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벤션에서는 대한민국 브랜드의 정신적 자산을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지역,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을 이어주는 소통과 화합의 귀중한 장을 제공하였다.

양수화 (종음 71)

(사) 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인 양 동창은 본 오페라단 창단 20주년 기념 및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주역들을 초청하여 V.Bellini 오페라 ‘청교도’를 예술의 전당에서 6월 23일부터 26일 까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또한 음악발전을 위해 오는 10월 26일 제1회 양 수화 성악 콩쿠르를 개최한다.

신인순 (동양화 72)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재미작가 신 동창은 아시안 미술 발전을 위하여 수여하는 ‘모빌 그란트’ 상을 수상하였으며 스미소니언 박물관 및 메르디안 국제센터 등에서 전시하였고 지난 6월 15일~23일까지 물파 스페이스에서 전시를 하였다.

임 진 (작곡 72)

평택대 교수인 임 동창이 6월6일 <임진의 이야 기가 있는 재즈콘서트 II>를 흥대 앞 그로우에서 개최하였다.

김진향 (간호 73)

안산대학교 교수인 김 동창이 간호대 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염혜경 (간호73)

지난 2월 20일 인천 한림병원 간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금기숙 (의직 74)

지난 8월 9일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글로벌 섬유, 패션 네트워크’ 세미나에 현재 홍익대 글로벌패션네트워크센터 소장인 금 동창과 책임연구원 신혜영(의직 87) 동창이 함께 참가하였다.

이재온 (간호 75)

2010년 한중 자연치유-능력협회를 창설하여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신희 (간호 78)

구립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원장과 한국녀성홈 협회 부회장인 김 동창이 3월 1일 서울시 노인복지협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정현숙 (서양화 78)

서양화가인 정 동창은 지난 8월 25일 대만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대단무역센터, 한국 다도

화랑 등에도 출품할 것으로 보인다.

한혜리 (작곡 79)

6월 21~23일에 걸쳐 개최된 제21회 대구국제 현대음악제에 초청되어 작품을 발표하였다.

박용애 (피아노 79)

지난 9월 17일 영산아트홀에서 ‘박용애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권은희 (동양화 80)

8월24일~ 29일까지 서울 미술관에서 개최한 ‘SAAF 2011 부쓰전’ 1부에 참가하였다.

최영희 (정외 80)

6월 22 일부터 1주일 동안 갤러리 ‘르메르’ 에서 제 7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주제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블루란 색의 개입으로 송화시키며 표현된 새로운 시도로 작가의 원숙한 내면의 세계를 함께 보여 주었다는 화단의 평을 받았다.

서정희 (동양화 81)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현재 추계예술대 교수인 서 동창이 지난 8월 19일~ 21일까지 서울 하이아트 호텔에서 가진 ‘AHAF Seoul 2011 Hotel Art Fair’에 참가하였다.

변은경 (간호 83)

서남병원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김은주 (특수교육 85)

최근 국립 특수교육원장에 취임하였다.

안기주 (간호 86)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전공 주임교수인 안 동창이 간호대동창회 총무로 추대되었다.

박용숙 (특수교육 87)

성베드로 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박은혜 (작곡 87)

이대 교수인 박 동창은 7월3일~10일에 걸쳐 모교와 경주에서 개최된 2011 CMS Internationae Conference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고기현 (동양화 88)

지난 7월3일~13일까지 장은선 갤러리에서 ‘미 키마우스 인생’ 개인전을 열었다.

박진아 (간호 88)

호원대학교 교수인 박 동창이 2011년 1학기부터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희준 (약학92)

서강대 신방과 교수이자 극작가인 이 동창이 지난 7월 16일~8월 28일까지 호암아트홀에서 뮤지컬 ‘내마음의 풍금 시즌4(연출 오만석)’를 공연하였다. 또한, 이 동창 극본의 창작극 ‘에너밸리(연출 김운기)’가 9월 15일~11월 6일까지 혜

화동 나온씨어터에서 공연 중이다. 이 동창 극본의 또 다른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가오는 10월 8일~11월 6일까지 일본 오사카 쇼치쿠(송죽)극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유 경 (국악 96)

6월 24일 국립국악원에서 2011공감 청년국악의 일환으로 Clouds over the Mountains라는 주제로 해금 독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이수자인 유 동창은 1999년에 비영리단체인 캐나다 국악원을 설립하여 현재 원장으로 있으면서 캐나다와 미국, 스웨덴,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독주회와 협연 등 2백여 회의 공연과 강연을 하였다.

이남준(의학 96)

서울대학병원 외과 간 이식팀에 근무 중인 이 동창이 9월 기금 조교수에서 기금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윤진숙 (동양화 00)

8월 6일~16일까지 자작나무 갤러리에서 윤 동창의 개인전인 ‘자작나무 기획전/들풀 살아가기’가 열렸다.

김형주 (섬유예술 01)

신구대 섬유의상코디과 겸임교수인 김 동창이 10월 5일~ 11일까지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

원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색과 빛이
어우러져 빛나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전
시회를 개최하였다.

남정현 (작곡 02)

6월8일 계명대학교 해담홀에서 열린 '한일창작
가곡 교류 연주회'에서 가곡을 발표하였다.

김현경 (대학원 간호 06)

서라벌 대학 교수인 김 동창이 2011년 1학기부터
서라벌 대학 간호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화동창'에 들어있는 연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보셨습니까?

동창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1년 3만원)가 총동창회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동창' 겨울호에 납부자 명단이 게재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참여해 주십시오.

이미 납부한 동창들께는 지로 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동봉되었다면 폐기하시면 됩니다

납부 확인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02-3277-3386, 3387)

신입동창 명단

2011년 8월 26일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가소희 고기영 김소연 김아라 김예은 김유경
김지현 김한나 민선홍 박예란 박정윤 박주현
신연수 이세향 이유민 이혜지 전주희 최슬기
하지현 허유진 김고운 김숙랑 김화영 박희원
유진명 이소연 정은영 조은정 진소희

중어중문학전공

강지은 김문선 김민경 김유연 김은영 김이지
김지혜 류혜빈 박혜준 박혜화 손하예슬
신재은 안지현 염지 오태희 유영주 이나현
이서형 이세진 이슬기 이영아 이유경 이지윤
정희정 조수정 조안나 조정임 한보람 함영은
허명주 강주혜 김예선 김우정 김유경 박수진

영어영문학전공

강하라 김경림 김기정 김미정 김성은 김숙연
김예지 김주희 김지원 김태림 김효신 노을이
박나예 박지현 박혜연 변주슬 서영빈 선다영
신해림 안소연 안재형 양소정 염지원 오소민
오정은 오희정 윤지희 윤호경 이규리 이명진
이예림 이지나 이지민 이하늘 임예원 정부원
정수민 정지은 조아라 조은아 차화신 최다연
최예슬 최윤정 최은정 한지희 김보람 김수민
박지현 유슬희 유원정 이다예 이병은 이세향
차지혜 허명주

불어불문학전공

김고운 김고운 김명은 김명지 김수빈 박선희

박소영 박수진 오수민 유수정 이다예 이병은
이세영 임민선 조아라 황인경 곽희경 엄지원
이혜정

독어독문학전공

김수진 김은영 김지혜 박현경 신선영 안주영
우은희 우혜원 이민지 이지나 조미경

사학전공

권지예 김수진 박영은 안경수 윤도영 이나래
조은정 지혜선 최선영

철학전공

고차원 김보미 김연우 김우현 서경화 오선아
유능화 유진명 윤나라 이승연 이주영 정은영
박한아

기독교학전공

강주혜 김보람 박서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강상희 김도연 김신이 김우정 김인혜 김지혜
김태경 문영란 양정윤 엄자혜 유미형 유슬희
이경선 이리영 이수연 이자은 임정희 장나래
정겨운 정윤정 정인영 주혜린 최슬아 최윤경
최주희 황정화 강지은 김유연 김정주 김지원
우은희 이세영 이진영 지한나 한세리 황신영

행정학전공

공예솔 김경지 김영 김혜승 김혜윤 박지현
반가운 서선화 손희종 유해민 유희원 윤경선

신입동창명단

이소연 이태윤 이혜승 이희선 이희진 정혜진
조서경 조수현 조현진 황신영 박서진 장인경
정보영

경제학전공

강지원 고나희 김다영 김민주 김민희 김세희
김수빈 김안정 김양희 김영은 김은정 김정은
김주희 김희진 박수진 박아람 박인경 박주연
박혜리 배하니 설소희 심수연 심시영 안나영
유민경 윤선희 윤소윤 이도이 이상희 이서연
이서현 이수경 이수진 이승미 이재선 이정은
이주현 이지현 이해랑 이현정 장인경 전민아
정보영 정현이 정혜영 정혜윤 조민희 조수정
조현정 최은미 한소운 강소연 강송연 김도연
김명은 김보은 김서정 김선주 김은빛 김정경
김지슬 김지현 김지혜 김현정 김혜윤
노미란 민예빈 박경은 배유진 손희종 신꽃샘
오선아 오태희 위한나 유희원 이미희 이서형
이설빈 이세진 이승연 이유정 이윤영 이지희
이희재 이희진 정부원 정윤정 조수정 조화연
주혜린 한지형 허보람 허은한 허정윤

문헌정보학전공

고정원 김수민 김은란 송혜련 안은나 이승원
이지영 이한슬 최원실 김서영

사회학전공

김윤선 박지은 송영경 송한나 정지원 지한나
전수련

사회복지학전공

유해민

심리학전공

김행복 남초롱 박테레사 서지희 양은혜
이문영 이혜진 임지영 임지은 정애린 조은영

최윤정 한남영 공예솔 김미선 김보은 김수정
김지혜 남인영 박정윤 신재은 이다은 이주영
정지선 최은정 한지인 현아람

소비자학전공

구슬 권순일 김새별 김서영 남윤지 박지수
박지예 송유상 신혜인 어수정 오유정 이민희
이아름 이유정 임송하 조혜원 하정민 한지형
김명지 김민희 김혜경 민선홍 박윤지 배윤미
최연희

언론정보학전공

길다영 김보은 김새미 김정주 박경은 박미향
박상희 박수유 신은정 신지혜 이주연 한세리
김이지 이슬기

광고·홍보학전공

김도연 김윤정 김혜경 남인영 박유미 신소라
유세림 이보슬 이정연 이정은 정인선 최다솜
최한나 홍지연 설혜윤 신여진 임고은 하지현
황혜진

Zhang jing rong

방송·영상학전공

김나현 문성희 박수원 박주연 박한아 설혜윤
신여진 임진아 정수경 차지혜 한지인 허신애
김동림 김윤정 남인영 안주영 안지현 이리영
이정연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강유진 김보름 김수지 김은빛 김지윤 김현정
김혜인 김혜지 박인영 이미희 이선경 이설빈
이은혜 차시연 허보람 황윤선 배하니

통계학전공

강소연 김국화 김미나 김소희 김정경 박지현
백지연 신꽃샘 양정원 염주현 오선아 위한나
유원정 이은반 이지선 이혜미 이희재 장은정
전은선 최윤선 허은한 황지원 김혜인 황윤선

물리학전공

김지영 박시진 박지영 신슬기 오설희 이은정
이자영

화학전공

김가인 김경아 김미선 김수진 김예린 김옥빈
김지연 남정임 서재민 오승미 오은주 이란
이윤영 임다영 정다희 조선정 조은경

화학 · 나노과학전공

김호은 성은규

생명과학전공

강화연 권예지 김명신 김수연 김이현 김지영
소지현 송주희 윤혜림 이영재 이은서 진주
한혜정 홍연지 홍은경 홍정민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고보람 신지현 이은주 이현지 임소라 최지영
홍주연

컴퓨터학전공

김명주 정지선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권민혜 김소옥 김소윤 김연실 김유나 김은혜
김현정 김혜민 유성순 이해승

전자공학전공

김미련

건축공학전공

박유진 이보희 제지경

환경공학전공

김예슬 김효정 엄다예 정승원 주리아 최수지
허수지 황근아

환경학전공

한유주

식품공학전공

금선주 박혜권 서지은 이시월 이효란 인수연

예술대학

관현악전공

김지혜 이은지 이은진 장혜영

성악전공

정주연 현희승

작곡 · 이론전공

장영민

한국음악전공

권한송이 김바니 김예지 김지현 이수연
이지예 이지혜 이현서 전경은 정지영

동양화전공

김민정 신혜윤

서양화전공

김다미 김지은 한수영 황혜리

조소전공

김정현

섬유예술전공

서우은 이지영

도자예술전공

심다은 이빛나

공간디자인전공

김민선 김혜림 장선영

시각디자인전공	영어교육과
민효기 이지은 정소라 채지은	구성은 김민선 이정은 이지혜 임정민강민재
산업디자인전공	김경은 장경희 형은정
마승은	사회생활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역사교육전공)
남수정	김보아 김지연 김지향 박주연 박진숙 유리
영상디자인전공	이현아 조안나 조인선 천누리 이미리
김지연	(지리교육전공)
의류학과	강송연 김남희 박민영 박재희 선진명 유경미
김혜림 노경무 박윤지 박효진 장서윤 전수련	정은혜 조혜미 조희주 최수희
김소영 김예지 김예지 한세진	(일반사회교육전공)
무용과	김유진 배유진 양혜림 임혜진 황정은 박성은
김미례 이정원 아주현 정선미 채수정	(공통사회전공)
사법대학	김유진 조안나 조인선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김숙랑 김우리 김현애 박미정 반혜주 서예인	강영주 김영신 문현수 백영경 이미나 임혜린
유은지 이지현 임수진 전희수	김우리 김지향 김현애
유아교육과	과학교육과
김경은 안예경 최정희 최주선 한소희	(물리교육전공)
초등교육과	김다희 김정미 선주희 임희선 한세영
김수정 동민주 송다혜 신수진 이다정 이은실	(화학교육전공)
이혜정 한현지 김경은 김나영 김서영 반혜주	오보화 이후정 이해윤 조은별
윤희진 이정은 이해윤 이해린 전희수 정은주	(생물교육전공)
최정희	박연정 정현주 최수진
교육공학과	(지구과학교육전공)
강민재 김나영 김나영 노상연 윤희진 이현배	김이란 백혜진 정지현
조노을 형은정 황보영	(공통과학전공)
특수교육과	김정미
김나경 김서영 김은혜 김혜림 류성혜 박선영	수학교육과
박성은 손성인 이정윤 이해린 장수진 장은혜	김지현 이영인 이지형 전혜진 정자영 조솔
정지예	홍효선 김정미

신입동창명단

보건교육과

김화영 류희재 민예지 이미리 임채희 장경희
정은주 조가희 진소희

법과대학

법학과

강성은 곽수진 권세라 김난영 김민지 김아름
김예린 김은실 김인혜 김자연 김지예 김지희
문수연 박근이 박범진 박수현 박영천 배윤주
변희경 서국화 서유진 설리라 송미연 신주희
심주형 양지혜 연보람 오수연 왕정민 유희선
윤다야 윤정하 이가은 이경빈 이나경 이서윤
이세라 이우경 이유나 이지영 이현주 이해리
이혜연 임슬기 장새롬 장샛별 장지혜 정서연
정수연 정유진 채수지 최정민 최지우 최혜진
한정원 허연정 흥여진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은경 고은아 권기주 권나예 김경민 김규원
김다흰 김민선 김서정 김소정 김영란 김유진
김진 김하니 노경민 노혜란 문지선 민지윤
박미정 박수지 박수현 배인경 서해은 신채민
신현경 안선영 유귀운 윤샛별 이미나 이미우
이수현 이승혜 이우리 이윤영 이지영 이지희
이태영 이현민 임아람 임자운 장혜원 정다분
정아름 정애니 정지윤 정효정 조아영 조연지
조한별 조화연 진보람 최가영 최유영 최주희
하민희 한승현 Wang Ni Na 강혜인 고순영
공성혜 권예지 김경아 김나영 김나현 김문정
김서연 김영은 김우현 김은영 김은영 김정은

김지현 김혜림 남정임 박나예 박미향 박예란
박유미 박지은 박지현 박지현 박현경 박혜준
박혜화 방성현 변주슬 신혜인 안지영 염아진
오소민 유세림 유지영 윤희선 이경선 이경화
이규리 이명진 이민지 이민희 이송미 이예림
이은반 이지나 이지선 이자윤 이채은 이하늘
이현배 이현정 이해승 장나래 전민아 정인선
정혜윤 조아라 조아라 조안나 조은아 조혜원
주선희 차화신 최윤정 한혜정

국제사무학전공

강민희 강지선 고순영 김서연 김효진 박상희
박지선 방성현 안지영 윤수정 윤희선 정은지
주선희 강구슬 고정원 김성은 김은란 박인영
신은미 오정은 유수정 유효경 이지민 이해진
임예원 조미경 최다연 함영은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과

강구슬 김재연 김효진 박보라 전해진 지윤주
한세진

식품영양학과

김은주 정샛별 조예나 최예진 신은정

보건관리학과

김진여 박예진 이해원

스크랜튼대학

자기설계(디지털인문학)전공

유능화

자기설계(사회와정의)전공

양소정

신입동창명단

자기설계(과학과생명)전공

김혜지 이은혜 장은정 전은선 홍은경

자기설계(통합적문화연구)전공

이지나

자기설계(사회과학아이니셔티브)전공

길다영 신지혜

국제학전공

강윤영 강해인 공성혜 김기연 김문정 김보은
김선주 김세미 김정현 김지슬 김지연 박주현
배정은 석은빈 신유정 심수진 유지영 윤서영
이경화 정지현 조미리 주보라 최세림 하태경
한은혜 험수경 황지혜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강현정

건반악기과

이지민 현아람

관현악과

권예원 김수강 이진영 전보람 최신영

성악전공

김주영 신지혜

성악과

김샛별

교회음악전공

김나경

작곡전공

박해례 이승민

작곡과

김민지 임고은

한국음악전공

김혜인

한국음악과

김보리 김소연 박희원 한지원 황경민

조형예술대학

한국화전공

최민혜

회화·판화전공

곽세원 방초아 이유경 임미경 지세윤 황혜진

조소전공

김로사 김재희 민윤경 이민지 황보영 이유림

환경디자인전공

이경미 이유리

시각정보디자인전공

고영선 김민지 김아리슬 김효진 변다윤

송예령 양지혜 임가희 김지민

산업디자인전공

김래영 김은혜 이정현 이초희 최은영

패션디자인전공

김지현 박재민 안송은 이슬기 이지윤

섬유예술전공

김은정 김지민 명 솔 박이영그네 박혜림

전가원 현내진

도자예술전공

김남희 김민주 백주영 윤서경 이유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박서진 신은미 염아진 이경언 이다은 이새롬

이채은 조윤선 신소라

사회체육학전공

임지아

무용과

김동림 김수진 위슬기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과

오가영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전공

오가영

의류직물학전공

곽희경 김민지 김정은 노미란 민예빈 박진경
박혜은 배윤미 양서연 이송미 이윤진 이주희
이하나 임고은 정은숙 최현희 허정윤

식품영양학전공

김소영 김효진 정다혜 황인선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김영란 백영경 손하예슬 이수연 이지은

미국학전공

조인선

미술사학전공

곽세원 권지예 김남희 김민정 김수빈 김지희
박서윤 신혜윤 윤도영 이보슬 이은지 임지은
최선영 한수영 황혜리 황혜진

여성학전공

김태림 윤다야 이서현

멀티미디어학전공

황보영

전문영어전공

임희선

NGO전공

박주현

북한학전공

김인혜 김지현 채수지

한국학전공

김영신 신연수

인지과학전공

서지희

과학기술경영전공

권예지 김지영 한유주

재무경제전공

김새희 박주연 심시영 정혜윤

공통사회전공

강송연 김남희 김보아 김지연 김지향 박민영
박재희 박주연 박진숙 배유진 선진명 양혜림
유경미 유 리 이현아 임혜진 정은혜 조혜미
조희주 천누리 최수희 황정은

공통과학전공

김다히 김아란 박연정 백혜진 선주희 오보화
이우정 이해윤 임희선 정지현 정현주 조은별
최수진 한세영

아동학전공

김서영 송유상 조수현 최윤정

일본언어문화전공

고기영 고차원 김가인 김경림 김소연 김수진
김예은 박수현 송혜련 양서연 이서현 이수진
이슬기 이승원



동창이펴낸 새책



안인희 교육 번역서 러셀의 교육론

버트란드 러셀 저 | 안인희(교육 49) / 서광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버트란드 러셀의 교육철학, 논리학, 지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사회철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탁월한 통찰력을 제시한 러셀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며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은 1926년 초판이 발행되었을 때와 똑같은 통찰력과 적응력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고전이다. 이 책의 역자인 안인희 동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했다.



김태련 이명선 번역서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해리엇 러너 지음 | 김태련, 이명선 옮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미국의 저명한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해리엇 러너의 신간. 여성들의 다양하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 에너지로서의 ‘분노’를 재해석했다. 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 심리학회장을 역임한 김태련(교육심리 60) 동창과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 「20대 여성의 우울 대응 행동」 등의 논문을 발표한 이명선(영어영문 83) 동창이 우리말로 옮겼다.



조기숙 연구서

여성과학자의 글로벌 리더십

조기숙 (정외 82)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차세대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기 위해 여성 노벨상 수상자 16명과 한국의 성공한 여성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연구한 책. 그동안 일반적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나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지만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은 국내에서 이 책이 처음이다. 특히 여성 과학자들이 결혼과 육아 등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삶의 과정으로 인한 고충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을 조명하면서 여성 과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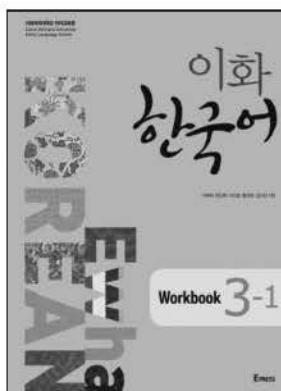


이화통역번역학총서
중국 번역사상사

왕병호 지음 | 김해림 이지혜 김효정

강경이김남이 옮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중국 번역사상사』(원제: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는 중국 번역사상의 정수만을 추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으로, 고대 불경 번역사상을 비롯해 20세기에 활약했던 주요 번역가 10인의 독자적인 번역 담론들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번역발전사를 통시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화한국어

구재희 · 현진희 · 이소영 · 황선영 · 김민선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 한국어〉 시리즈는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어 교재 시리즈이다. 이 중, 「이화 한국어 Workbook 3-1」은 「이화 한국어 3-1」에 맞춰 개발된 연습서로, 이 연습서는 교재 내용에 대해 보충 학습,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실 내 수업과 개인 학습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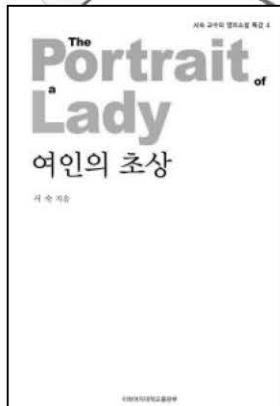


여은경 번역서

그게 바로 너야

라스칼 저 | 여은경(불문 87) 역 / 여우고개

『그게 바로 너야』는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책이다. 감성적인 이야기와 독특한 그림으로 2010년 블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많은 호평과 관심을 받은 이 책은, 특히 '화려한 색감', '부드러운 수채화의 번짐 효과', '심플한 펜 터치'가 조화를 이루는 그림으로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아이들뿐 아니라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의 시선도 사로잡는다. 여우고개 출판사는 윤옥초(불문 87) 동창이 대표이다.



서숙 강의록 여인의 초상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4〉 서숙(영문 68)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대 영문학부의 서숙 교수가 자신의 강의록을 소설 별로 펴내는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 강의를 담고 있다.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1881)은 독립심 강하고 생기발랄한 미국 처녀 이사벨이 영국으로 건너와, 생각지 못한 큰 유산을 상속 받고 잘못된 결혼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이다. 저자는 이 강의록에서 마치 독자와 소설을 함께 읽어나가듯이 한 장(章) 한 장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한 젊은 여성 이 19세기 말 가부장적인 인습과 주류 질서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나가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한다.

최내경 미술 여행기 고흐의 집을 아시나요?

최내경(불문 89) / 청아람

화가들이 머물렀던 집과 그들의 자취를 찾아 프랑스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들의 작품에 대한 소개, 도시와 건물 모습에 대한 묘사, 저자의 느낌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나름의 멋과 의미가 있는 작은 미술관이나 화가들의 아틀리에가 특히 눈에 띈다. 책 마지막의 '미술관 안내'에서는 본문에서 소개한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처 소개하지 못한 미술관까지 한데 모아, 주소와 입장료, 관람시간, 전화번호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지 시집 화려한 우울

김신지(교육 68) / 문학마을사

2009년 〈문학마을〉을 통해 등단한 늘빛 김신지 시인의 첫 번째 작품집. 시인의 가슴에서 발견한 역설의 미학이 돋보인다.





축하 합니다



김금래(사회75) 동창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9월19일 김금래 동창이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시기에 장관의 소임을 맡아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소감을 밝힌 김동창은 2010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맡아 왔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여성국 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75년도 사회학과의 ‘올해의 이화인’ 이기도 했던 김동창은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다.



유중근(영문67) 동창 대한적십자사 총재 취임

10월14일 대한적십자사 대강당에서 창립 이후 첫 여성 총재인 유동창이 취임식을 가졌다. 제 27대 총재로 선출된 유동창은 1998년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을 맡아 묵묵히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며 적십자 활동을 시작한 뒤 지난 1월 부총재에 취임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다문화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센터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해온 유동창은 개인적으로는 1984년부터 경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다방면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컬럼비아대 영어교육학 석사로 김활란장학회 감사, (재)이화학당 감사, 경기여고 동창회장을 역임하였다. 1966년도 이대 메이퀸.



최금숙(법학73)동창 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

8월18일 제13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최 동창이 취임하였다. 1990년부터 취임 전까지 이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최동창은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및 부원장,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이사이다.



이영숙(약학57)동창 산업포장받아

6월 21일 여성경제인의 날에 이영숙 동창이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김윤옥 영부인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코모도 호텔 회장인 이동창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 합리화를 하여 국가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책임이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아 모범여성 기업 유공자 포상을 받은 것이다.



한상애(간호75)동창 대통령 표창받아

7월 1일 한상애 서울시 간호사회 사무처장이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7월 1일 받았다. 한동창은 서울시 간호사회가 운영하는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과 육아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유숙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돋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박형숙(제약75)동창 대통령 표창받아

한서대 교수인 박동창이 환경의 날 환경연구 및 보존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동창은 지난 8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해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숙희(건축98)동창 '젊은건축가상' 수상

건축학과 1회 졸업생인 전동창이 부군 장영철 소장과 함께 운영하는 와이즈 건축 사무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상하는 2011년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부터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신진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차경애(신방 66)동창 한국YWCA연합회 회장 취임

10월 3일 서울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8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 대회에서 차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차동창은 YWCA 전부회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 위원이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부회장,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강사(사회복지)를 역임하였다.



신경림(간호 76)동창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장 취임

지난 3월 28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에 선출, 5월 1일 부로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장이 몰타에서 진행된 2011년 ICN CNR(5월 4일) 및 컨퍼런스 폐회식(5월 7일)에서 한국이 2015년 ICN CNR 및 컨퍼런스 개최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박재운(작곡 80)동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취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관 등을 역임한 박동창이 7월 14일 제 3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동창은 예술의전당 음악자문위원, 예술경영연구소 심의위원, 사) 한국여성작곡가 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해 온 바 있다



이영자(작곡 54)동창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

모교 음대 작곡과 교수를 역임한 이동창이 지난 7월 대한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동창은 1981년 한국여성작곡가회를 창립,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서울시 문화상, 3·1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장혜원(기악 62)동창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

모교 음대 명예교수이며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으로 재직 중인 장동창이 제 58차 대한민국예술원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장동창은 수많은 후배를 길러낸 한국 음악계의 대모로 세계음반계에서도 명성을 쌓았으며 3·1문화상, 독일십자공로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S. Noble은 그 어떤 결혼정보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품격을 자랑합니다



지금, 맛보십시오. 세월의 깊이가 다른 **S. Noble** 만의 그윽한 성공매칭서비스를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와인도 세월의 깊이에 따라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의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온 S-Noble.
지금, 맛보십시오. 업계 최고의 성흔율을 자랑하는 S-Noble만의 그 품격높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흔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캐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대한민국 10%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